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www.newstarrealty.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 오바마케어 한인들 여전히 불편

### 매스헬스 커넥터 접속 하늘의 별따기 회원 가입 후 로그인도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오바마 케어를 위한 연방정부 웹사이트가 12월 초 개설했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가운데,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매스헬스 커넥터 웹사이트 (Masshealthconnector.org) 역시 개선되지 않아 한인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 주부는 “이제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온라인 가입은 힘들다”고 밝히며 “웹서핑을 통해 간신히 종이 신청서를 다운 받았지만,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이 신청서가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주부는 “다행히도 보험 가입 기한을 3월까지 연장해 준다는 편지를 오늘(10일) 받았

다”며 “병원 진료를 미뤄야 할지 어찌할지 고민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일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 장애를 “거의 모든 접속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지불, 보험가입 등 기술적인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스헬스 커넥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 각자에게 적합한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 주는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이 하늘의 별따기다.

이현미 주부는 “10월부터 거의 매일 몇 시간씩 시도한 결과 어느 순간 가스로 진행이 됐다”며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며 지시대로 따랐더니 결국 ‘정보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화상담원에게 전화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런데 전화 연결 또한 힘들었다. 오죽하면 배터리가

## 미국세청(IRS) 사칭 사기 기승

SNS, 전화, 팩스 통해 개인정보 노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최근 IRS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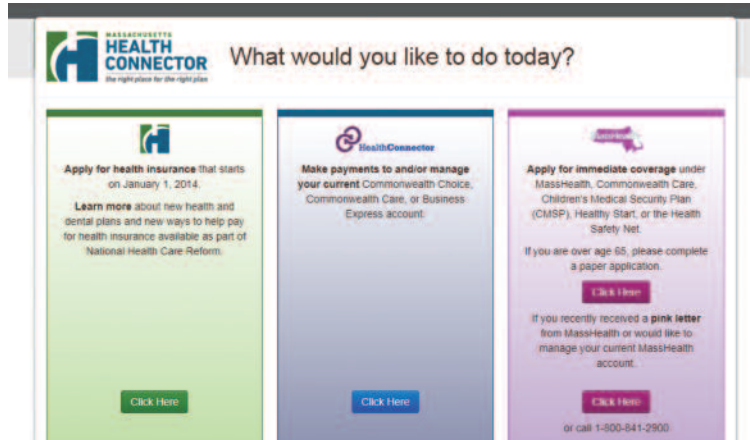
장우석 변호사는 “최근 한 고객이 ‘세금 체납에 대해 IRS로부터 소송을 통보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해와 IRS 쪽에 알아보았다”며 “결과 사기전화임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IRS 에이전트는 ‘요즘 하루에 20건 정도는 이런 류의 전화

를 받는다. 세금환급 기간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IRS 에이전트와 통화한 결과, 그들은 99.9%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등의 SNS나 전화, 팩스 등으로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없다”며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텍스트 파일링 주소로 우편(퍼스트 클래스 혹은 서티파이드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오며, 납세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차례 경고한 후 비

▶▶3면으로 계속



매스헬스 커넥터 홈페이지, 여전히 접속 불량이다



IRS를 사칭해 연락은 이메일 건본과 팩스 건본(내용 및 이미지 출처: www.irs.gov)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무동산 매머·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Best Deal!**  
11월, 2014년 2월, 3월, 4월 특수가맹점  
보스톤 ~ 임플 (왕복) ONLY **stop**

**\$1073** 부터

▶ 본 가맹점 내에서 항공권 구매 시  
▶ 항공권은 왕복 시 왕복에 대해 환불 가능  
▶ 2013년 11월 15일 이후에 발급된 항공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800-810-4223 (Toll Free) / 617-424-9986

한국어 상담 | 월~금 12pm-6pm  
예약센터 | 영어, 일어 only 1-877-480-4223 (24시간)

이메일 [help@jacob-korea.com](mailto:help@jacob-korea.com)  
홈페이지 [www.jacob-korea.com](http://www.jacob-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jacobtravelkorea](http://www.facebook.com/jacobtravelkorea)

**JACE TRAVEL**

**Everything you need to get to move-in day.**

- SureStart® Pre-approval\*
- On-time Closing Guarantee\*

**citi**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and property approval. Certain restrictions may apply on all programs, terms, conditions and fees for accounts, products, programs and services are subject to change.

**Ezer Lee**  
Home Lending Specialist  
617-834-2446  
ezer.lee@citi.com  
NMLS ID: 859995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매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 외무 상점**

- Mattapan, 성업중인 옷가게
-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 Asking \$100,000

**제이슨 전 Realtor**  
매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이삿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

- SureStart® 사전승인\*
- 제시기에 계약 종료 보장\*

**citi**

이같은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은 신용 및 자산 승인에 따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특정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특정 조건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Ezer Lee**  
주택대출전문가  
617-834-2446  
ezer.lee@citi.com  
NMLS ID: 859995

# 한인들을 위한 오바마 케어 가입안내

**한인회 보스톤봉사회 협력**  
**12월 29일 성요한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오바마 케어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한인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뉴잉글랜드

드한인회와 보스톤봉사회가 공동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 안내 설명회' 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보스톤봉사회의 윤희경 회장을 초청, 오는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교회에서 '오바마 케어 가입 절차와 방법'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781) 861-7799  
hckim@bostonkorea.com

## 오바마케어 가입, 기술적인 문제 개선 시급

▶▶1면에 이어서 다 떨어질 정도로 대기하곤 했다" 고 호소하며 "가까스로 연결됐지만, 그들도 해답을 주지 못했다" 고 고개를 저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헬스 커넥터의 대표감독자인 진 양은 "기술적인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화 상담원을 3배 정도 늘릴 것" 이라고 밝혔다. 진 양은 또한 "CGI가 6,900만 달러를 들여 구축한 연방정부 헬스케어 웹사이트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며 "시간이 촉박하다" 고 난감함을 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난항중에도 운 좋게 가입 절차를 밟은 주민도 있다. 보스톤 글로브에 의하면 소수이지만, 온라인 지불을 위해 정보를 제출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 글로브는 "3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오랜 노력 끝에 보험 가입 신청을 마칠 수 있었으며, 그중 1,700명 정도만이 헬스 플랜을 선택했다" 며 "하지만 주정부는 12월 23일 이후부터 보험료 지불 과정을 진행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 정부보조 보험에 가입돼 있는 12만 6천여명의 주민들은 오는 3월 24일까지 새로운 플랜을 선택해야 하며 이들 외 수천 명 역시 그때까지 새로운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자 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매스헬스 커넥터를 이용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개인 어카운트(계



정) 개설이다. 어카운트를 개설해 로그인 한 후 가족관계, 연봉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나가면 정부 건강보험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판매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을 쇼핑할 수 있게 된다. 쇼핑을 마치면 오바마케어 신청자(You' ve Applied)가 된다. 이후 해당보험사가 보험료 청구서를 보내와 신청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가입이 완료되고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 과정까지 마친 건강보험



## 음악인 목회자 사모들의 특별한 콘서트

**성탄 음악회 "Hymns of Grac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스톤 지역 음악인 목회자 사모들이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WINTER CONCERT "Hymns of Grace"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성탄 음악회는 오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15분 보스톤 한인교회 ECC 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음악회는 교회의 전통과 함께 불리어 온 깊은 은혜의 찬송들이 클래식 곡들과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음악회는 네명의 보스톤지역 담임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성사중창 '클레이' 가 함께 출연해 더욱 풍

성한 무대가 꾸며질 것으로 보인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김은혜, 피아노 오은영, 비올라 천민정 그리고 남성사중창 '클레이' (안신형, 유경렬, 이성조, 권오진 목사) 이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 모아진 후원금은 보스톤 지역 목회자들의 월례 연구와 토론 모임인 '하요 목회연구모임(화목연)' 후원금으로 기증되어 진다.  
**공연:**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15분  
**장소:** 보스톤 한인 교회 :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hckim@bostonkorea.com

구입자들은 등록자(You' ve Enrolled)로 불리게 된다.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선정되는 저소득층은 주정부에 통보돼 가입 절차를 밟게 되며,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신청자들은 건강보험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나머지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보험거래소나

민간보험에서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웹사이트 접속이 문제가 되자 종이 신청서를 이용하려는 주민들도 있지만, 이 또한 담당직원이 웹사이트를 통해 입력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복구되지 않는 한 효율성이 없다.  
hcki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스레딩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핸들링) Hair Manicure
- 헤어 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서블릿 사기, 겨울 방학 노려

## 한인2세 사칭 메일로 접근 거액 체크 보내고 차액 송금 요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서블릿, 룸메이트 등의 광고를 내는 유학생 상대 체크사기가 여러 번의 신문보도 및 보스톤코리아 닷컴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및 겨울방학 중 서블릿 룸메이트를 구하는 학생 및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사기수법은 조금만 신경쓰면 속지 않을 수 있는 조잡한 수준이다. 미국생활에 익숙치 않은 유학생들과 특히 짧은 기간에 서블릿이나 룸메이트를 구하려는 사람을 주 타깃으로 노

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로 자신을 '샌드라 김 또는 샌드라 박' 등 한인 2세로 자칭하는 사기꾼은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나 크레딧리스트 등에 올린 서블릿 광고를 보고 이메일로 접근해 온다.

"외국에 출장중이며 곧 보스톤에 올 예정" 이라고 자신의 일정을 밝히며 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후, 방값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체크로 보내고 차액을 송금해 달라고 한다.

범인은 절대 전화통화를 하지 않으며,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만 교신한다. 차액을 받은 후에는 "사정이 생겨 보스톤에 올 수 없다" 며 마지막 남은

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한다. 송금을 요청할 땐 "시도해도 없이 문자를 보내온다" 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한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이런 메일을 받아온 게 몇년 됐다" 고 말하며 "하지만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들은 걸려 들기 쉽다. 특히 서블릿을 급하게 놓으려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여름 방학을 앞두고 촉박하게 서블릿을 구하던 이 모양은 3,000불이 넘는 금액을 고스란히 송금한 후 가짜 체크임이 밝혀졌고 그에 앞서 민박을 운영하던 이 모 씨 등도 3,000불 이상을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

하지만, 샌드라 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받은 후 당하지 않은 한 유학생은 "통화를 하지 않는 점이 수상해 인터넷이나 화상 채팅을 강하게 요구했더니 알아서 연락을 끊었다" 고 밝히며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서두르지 말고 확인할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여름 FBI에서도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자 나섰지만, 아직 범인 검거에 대한 소식은 전해 지지 않고 있다.

hckim@bostonkorea.com

##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전화에 대처하는 법

▶▶1면에 이어서 로소 금융계좌 혹은 급여계좌에 조치를 취한다" 고 알렸다. 그들은 이미 납세자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밀린 세금이 많을 경우,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협상을 하면서 적정 절차를 통해 세무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도 납세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조정협상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체납자와 체납자의 변호사, 그리고 IRS에 이전트가 사전에 시간을 정하여 텔레 컨퍼런스를 한다고.

이에 장 변호사는 IRS에이전트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다시 전화 걸 수 있는 번호를 요청하고 해당 직원의 배지 번호를 달라고 한 후 ▼IRS 공개번호로 연락을 취해서 왜 연락을 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하여 통화하면 되고, 편지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통해 전화, 혹은 우편 발송자가 IRS 에이전트가 아님이 확인되면,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전화번호: 1-800-366-4484)으로 연락해 리포트할 것을 적극 권했다.

이에 더해 장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피싱 이메일을 IRS로부터 받았다면 ▼답장하지 말 것 ▼첨부문서를 열지 말 것(악성코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 ▼해당 이메일을 phishing@irs.gov 로 전송(forward) 할 것 ▼해당 이메일을 삭제(delete)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IRS웹사이트를 발견했다면 해당 url을 phishing@irs.gov로 보내고, 제목(subject)에 "Suspicious website" 라고 넣도록 알렸다.


다음은 IRS와 관련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이다.

▼IRS와 관련없는 피싱인 경우에는 reportphishing@antiphishing.org 로 포워드 (forward). ▼의심되는 악성 코드가 있는 이메일인 경우에는 spam@uce.gov 로 포워드. ▼의심되는 악성 코드를 클릭한 경우나 첨부문서를 다운로드한 경우, OnGuardOnline.gov 방문.

hckim@bostonkorea.com



지난 2월 샌드라 김이 이모 씨에게 보내온 가짜 체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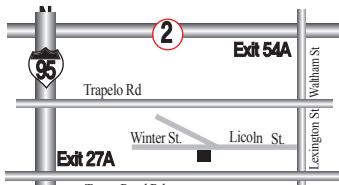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7, 2013

Class	Time
PSAT/SAT Prep (Grade 11)	9:00AM - 11:00PM Saturday
PSAT/SAT Prep (Grade 10)	11:30AM - 1:00PM Saturday
Reading/Math (Grade 9)	1:30PM - 3:00PM Saturday
SAT Prep (Grade 12)	4:00PM - 6:00PM Saturday
One on One Tutoring	3:00PM - 10:00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북한인권 문제 다뤄

## 북한 왕조세습과 북한인권의 난제 다룬 포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가 지난 7일 토요일 하버드 법대에서 워싱턴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티를 주강사로 북한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워싱턴 D.C.에서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 Korea, HRNK)를 통하여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탈북난민, 납북자 인권유린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을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스칼라티 총장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주제 발표를 전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강호 총영사도 참

석해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기본 생활의 향상에 주력해야 하며 핵 무기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진정한 남북협력을 받아들이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당부하는 격려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 후 위원들은 조은경 민주평통 북한 인권위원장의 진행으로 "북한 왕조세습과 북한인권의 난제"를 놓고 발표와 질의, 토론 등을 이어갔다.

스칼라티 총장은 “최근 여러 기관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수감된 정치범이 20여만명 이상이라는 점, 이들 중 다수가 줄어드는 양상은 기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 사할을 걸

게 되었고 이 경로를 통해 라디오, TV 등이 유입돼 북한 주민들이 한류열풍 등 개방 사회의 면모를 알게 되었으며,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의 영향력이 늘어붙은 북한에 사상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장성택 제거 사태에 관하여는 “북한 개방의 숨은 변수인 장성택, 김정남과 연계된 중국과의 외교 관계 문제 등과 같이 여러 다른 돌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성운 교수(Tufts 플레처 외교대학원)는 “김 일성, 김정일에 의한 북한의 60년 통치가 다시 김정인에 의하여 40년 더 연장되는 세습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hckim@bostonkorea.com



워싱턴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티를 주강사로 북한 인권 포럼을 개최한 민주평통 위원들

# 한인회,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청원

## 한국 유학생 및 전문 인력들에 취업문 열어주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회(회장 한선우)가 MA주를 대표하는 연방 의회 국회의원의에게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3배 확대 청원서를 발송했다.

한선우 한인회장은 “유학생이 많은 보스톤 지역을 대표해 청원서를 올렸다”며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회장은 “최근 미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다 거부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그 동안 한국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왔던 일이지만 더욱 시급해짐에 따라 지난 12월 6일 존티에니(John F. Tierney), 조셉 케네디(Joseph P. Kennedy), 윌리엄 키팅(William R. (Bill) Keating) 등 MA주 출신 연방 국회의원 3인에게 한국인 비자쿼터 확대 청원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서신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 3만 한인을 대표하여 청



한선우 한인회장

원 한다며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는 매사추세츠 주 지역경제의 활성화 뿐 아니라 한미 상호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회장은 “한국 인구의 절반인 호수에 할당된 전문직 비자도 연 1만5000개인데 한국인에게 는 겨우 5000명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는 STEM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 전문 인력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들이 비자문제 없이 마음놓고 학업에 정진하거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총영사관 주관 창조경제포럼 열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과학기술자 및 생명과학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창조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주보스톤 총영사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역 내 과학기술단체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보스톤 진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체험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경제에 공헌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지난 5일 목요일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전문가 포럼에는 한인바이오산업협회(KABIC),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NEBS), 뉴잉글랜드 한인 바이오 제약 산업 협회(KASBP-NE), 뉴잉글랜드 과학기술 자협의회(KSEA-NE), 주보스톤총영사관 등에서 약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벤처의 성공 사례 △보스톤 지역 혁신생태계를 활용한 창업 사례 △보스톤 과학단지 개요 및 현지의 우수 인재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들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학진 특허변호사는 “연구실에서



성공적인 벤처가 되기까지”라는 사례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창업과 창조경제의 필수 요건을 설명하였으며, ‘Startup Talk’ 연사로 초대된 김형수 Eone Timepieces 대표는 MIT 및 보스톤 지역의 ‘풍부한 혁신 및 창업 지원시스템의 혜택’을 체험한 것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재형 과기협 NE지부 회장은 보스톤 과학단지의 풍부한 혁신 환경을 소개하였으며 서영아 NEBS 회장은 생명과학의 중심지인 뉴잉글랜드 지역 박사후(post-doc)고급인력의 풀(pool)인 NEBS를 통해 한국의 생명과학 R&D 발전에 기여코자 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박강호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스톤 혁신생태계 활용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과기협, “보은의 밤” 행사 훈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과기협(회장 이재형)은 지난 10일 벌링턴 소재 Cafe Escadrille에서 “보은의 밤” 행사를 열었다(후원: Jeio Tech).

과기협은 지난 일년 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준 회원들을 비롯하여 그간 과기협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단체들 및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에는 전 지부장들 및 원로 과학기술자들, 그리고 한인회, 시민협회, 한국학교협의회, 서울대동창회 등의 대표 및 관계자 4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과기협에 대한 격려의 말과 과기협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조국에 대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과기협은 협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수여자: 최준영 41대 지부장 및 윤상래 박사)했다.

자리를 함께 한 한선우 한인회장은 “과기협에서 지역단체들을 초

청하여 보은하는 자리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과기협이 이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평했다.

과기협 이재형 회장은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후원 및 참여를 해준 덕에 다양한 활동들을 보람 있게 해나갈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는 뜻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행사는 참석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자기소개와 덕담에 이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각종 게임을 통해 친목이 이루어졌으며 풍성한 선물과 경품도 행사의 즐거움을 더해줬다.

과기협 행사나 활동들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 과기협 홈페이지(www.kseane.org)를 참조하거나 이-메일(contact@kseane.org)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최선희 SunHee Choi  
박영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최선희 SunHee Choi  
조태령 TaelYoung Cho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정중희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ASC English

# ASC Boston #1 ESL School

ASC학원은 연방법에 의해 비 이민자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허가업체입니다. 본 학원은 외국 학생, 지역 편입학 학생, 신분변경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ASC프로그램은 보스톤 여러 대학에서 인정해 입학시 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SL Group Discussions



The Most Experienced Teachers



State of the art Learning Environment

무료 청강 가능  
매월 신규반 시작

집중 영어회화  
iBT 토플  
기초반  
집중 SAT 반  
회화반  
종합 작문  
비즈니스 영어

### ASC만의 혜택

외국학생들을 위한 현대식 교육환경  
대입 교육 / 원어민 강사들과 대화의 자리  
대입 지원서 카운슬링 / 무료 에세이 편집  
대학 입학 보장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음

전화요망 : 617.730.3705, 617.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ASC English

Location: 1108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Downtown Campus: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사진과 함께 보는 뉴스 | P · H · O · T · O · N · E · W · S

# 한글학교 아이들, 동심 키운 동요대회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도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2세대들이 한국 동요를 통해 마음껏 동심을 펼쳐 보여 지역 한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회장 한순용, 이사장 장인숙)는 지난 7일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제 12회 동요합창제'를 개최, 아이들만의 축제무대를 제공했다.

뉴잉글랜드 전 지역 9개 한글학교가 참가한 동요제에는 학교별로 총 13개 팀이 출전해 노래와 율동, 의상 및 소품 등을 마음껏 뽐냈다.

출전한 아이들은 시종일관 경쟁이 아닌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른 팀의 경연을 즐겼으며, 소속 학교 팀의 순서에서는 환호와 율동을 동원해 응원하는 흐뭇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250여명의 동요제 참가 학생들을 포함해 학부모, 내외 귀빈 등 총 500여명이 참석, 한글학교 동요제가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다.

동요제 심사는 보스턴한국예술인협회 회장인 김병국회장, 보스턴 총영사관 박지영 교육영사, 장인숙 협의회 이사장, 오인식 협의회 이사 그리고 율미자 직전회장이 맡았다. 수상은 각 참가팀의 특성에 맞춰 동요빛냄상, 멋진 열창상, 멋진 리듬상, 최고 율동상, 우수 감동상, 멋진 화음상, 최고 인기상으로 선정, 전 참가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갔다.

한순용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다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보스턴 총영사관 박지영 교육영사는 “한국어를 배우기에 동요만큼 좋은 것이 없

다”며 축사를 전했다. 협의회 다음 행사는 내년 3월 29일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가 계획 되어있다.

다음은 수상학교 명단이다.

**동요 빛냄상:** 성요한 한국학교 A팀, 북부 보스턴 한국 학교 A팀

**멋진 열창상:** 로드아일랜드 중앙교회 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B팀

**멋진 리듬상:** 보스턴 한국학교, 북부 보스턴 한국 학교 B팀

**최고 율동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A팀, 우스턴 한국학교

**우수 감동상:**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A팀, 성요한 한국학교 B팀

**멋진 화음상:** 보스턴 장로교회 한국 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B팀

**최고 인기상:** 우리 뿌리 한국학교  
hckim@bostonkorea.com



우리뿌리한국학교



보스턴장로교 한국학교



우스턴한국학교



북부보스턴한국학교 B팀



성요한한국학교 B팀



뉴잉글랜드한국학교 B팀



보스턴천주교 B팀



성요한한국학교 A팀



로드아일랜드 중앙교회 한글학교



북부보스턴한국학교 A팀



보스턴한국학교



뉴잉글랜드한글학교 A팀



보스턴천주교한국학교 A팀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안권  
Tel 617.739.2888 / www.ul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cock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 회계사 (C. P. A.)**

**정진수**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12월의 클래식 음악회 대성황... 500여명 청중 몰려

## 백혜선, 김이선 등 혼신의 연주로 한인들 사로잡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세계적인 보스톤 출신 음악인들의 무대 '12월의 클래식 음악회(A Classical December Evening)'가 500여명의 청중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6일 금요일 저녁 8시 NEC조던 홀에서 개최된 음악회는 유명 중견음악가 백혜선(피아노), 김이선(첼로) 씨의 혼신의 힘이 배어나는 연주와 니콜라스 키친(바이올린), 그리고 한준영(미국명 준한, 하프), 줄리엔 리(비올라

)의 공연이 어우러져 한인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

무대는 보로메오 퀴르텟의 멤버이자 부부 음악가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스 키친과 첼리스트 김이선 씨가 체코 출신 작곡가인 마르티누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를 연주한데 이어 하프리스트 한준영 씨가 한국 여성 작곡가의 대모인 이영자 씨(전 이화여대 교수)의 '솔로 하프를 위한 수채화'를 연주하였다.

이어 백혜선 씨가 리스트의 '베네

치아와 나폴리'를 연주, 때로는 부드럽고 섬세하게, 때로는 웅장하고 힘 있는 터치로 20여 분 동안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마지막 무대는 앞서 연주한 백혜선, 니콜라스 키친, 김이선 씨와 보스톤 심포니의 부악장보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 줄리엔 리가 비올라로 참여하여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을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는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과 동시에 기립박수가 터졌으며 수차례의 무대 인사가 이어졌다.

연주회에 참석한 박강호 총영사 부부와 한선우 한인회장을 비롯한 많은 한인 관객들은 연주에 대한 감동과 연주자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나누었으며, 이처럼 훌륭한 연주를 계속 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번 음악회는 보스톤 한미 예술협회(이사장 이충시,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고 (주)LG와 현대자동차가 협찬한 것으로, 미국인에게는 한인 음악가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인들에게는 유명 한인 음악인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hckim@bostonkorea.com



백혜선, 니콜라스 키친, 김이선 씨와 보스톤 심포니의 부악장보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 줄리엔 리가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을 연주한 마지막 무대

## 위안부 범죄 고발 '사이버 박물관' 개설

### 강제동원 사진·동영상 등 전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위안부와 관련한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담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역사 박물관'이 지난 7일 개설됐다. 뉴저지의 한인 미디어업체 '미디어 조아(대표 한지수)'가 개설한 이 사이

버 박물관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를 고발, 일본이 왜곡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고 후세에 인권과 평화 교육을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사이버 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피해자 증언, 추모·격려의 글, 갤러리 등 7개 코너가 영어와 한국어로

## “휴식같은 그림” 김희정 화가 개인전

12월 3일부터 30일까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순수 속에 매순간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에 나의 작품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있고 있었던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그 곳에 행복한 놀이터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지역 예술인 김희정 화가의 ‘휴식같은 그림’ 개인전이 지난 3일 뉴턴에 소재한 ‘뉴턴 무료 도서관(Newton Free Library)’에서 개막했다.

모두 18점의 유화 작품들로 전시된 이번 개인전은 김 화가의 최근 작품들로, 집안이나 주변 풍경 속 빗물이나 그림자, 빛과 시간 등이 조용히 화음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김 화가는 “작업은 늘 생활처럼

물을 먹고 숨을 쉬고 놓고 하는 일부여야 한다. 그러다가 만들어지는 작품을 때때로 내보이는 게 전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인전의 취지를 내비쳤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다지 관심받지 못한 것들, 그림자, 빛, 빗물 등은 자체로서는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이지만 그 유연성 있는 물질들이 살포시 어떤 표면에 내려 앉을 때 시간속에서 끝없이 변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보스톤 아트 스튜디오의 장동희 원장은 이번 김 화가의 개인전을 두고 “휴식, 평안, 안정 등이 느껴졌다. 전시작품들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좋다”고 전했다.

**전시회 일정:** 12월 3일~30일  
**장소:** Newton Free Library, 330 Homer St, Newton, MA 02459  
hckim@bostonkorea.com



‘휴식같은 그림’이라는 평을 받을만큼 평화, 감사,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김희정 화가의 개인전이 뉴턴 무료 도서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구성됐다. 피해자 증언 코너에는 황금주·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피

해를 증언하는 동영상이 실려 있다.  
hcki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회생-고령사고, 미결제입,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상환(인, 채권)-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더린스, 비지니스 회계, 세무, 중개, 개개  
민사소송, 형사소송 더린스

상담문의: (781) 712-1708 CHANG & ASSOCIATES, P.C.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지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서울대 동창회 Saturday Night Fever

### 동문들 다양한 주제 간단 세미나도 겸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장수인)가 지난 7일 토요일 렉싱턴에서 연말파티를 개최해 화기 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50여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 훈훈함을 나누는 이번 동창회에는 특별히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부제 하에 동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음대 동문들의 모차르트곡 연주에 이어, 의대 동문의 '보톡스와 피부노화', 사회대 동문의 '눈 뜬 장님 - 인식의 불완전함에 관하여', 사범대 동문의 '3대에 미치는 내 선택의 영향' 등의 유익한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 낸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연말 행사였지만,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동문들간에 친밀한 교류를 나누는 깊이와 재미가 함께 있는 동창회였으며, 임원들은 준비한

중창을 통해서 참석자들에게 흥겨움을 더해줬다.

이어 제3부 'Saturday Night Fever' 순서에서는 전문강사의 인도를 통해 최신 유행곡에 맞춰 춤바 댄스를 배우며 연말파티의 흥겨움을 더했다. 또한 이번 동창회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동문주소록이 발간되어 이번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장수인 회장은 "이번 행사가 50학년부터 04학번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어우러져,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히며 다음 행사로는 봄 산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동창회 소식 및 사진은 동창회 홈페이지(<http://sites.google.com/site/snuane/>)에서 볼 수 있고 기타 문의는 [snuane@gmail.com](mailto:snuane@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부제 하에 동문의 밤 행사를 진행했던 서울대 동창회에는 50여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 연말 파티를 겸해 훈훈함을 나눴다

## 고려대 교우회 즐거운 송년의 밤 보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회장 이태호, 생물 87)는 지난 12월 6일 금요일 여용동(경영, 82)/설명진(통계, 83) 교우 자택에서 송년파티를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50여 명의 교우들은 모처럼 만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 보스톤에 온 교우들을 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이태호 교우회장은 개회사에서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한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교우회는 교우들 간의 친목뿐 아니라 보스톤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학경시대회 후원, 한인회 후원, 한미문화재단 후원 등을 하겠다고 한 후 앞으로로도 많은 교우의 협조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철(재료 98)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이봉춘(불문 68) 교우는 "고대인들의 끈끈한 정을 느끼는 매년 발전되는 고대 교우

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보스톤에서의 고대 교우 모임에 처음 참석한 정서영(심리 06) 교우는 "지난 1월 낯선 보스턴으로 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교우들을 만나 반갑고 힘이 되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이어서 민속놀이인 윷놀이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익(건축 73) 교우의 선창으로 교가와 교호를 제창함으로써 모임을 마쳤다.

다음 모임은 2014년 5월 고대 교우회 고문인 한영상(법 69)/이봉춘(불문 68) 교우 자택에서 바베큐 파티로 모임 예정이다. 고대 교우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이태호 (617-780-2999), 김재철 (617-455-7649), [tlee0813@hotmail.com](mailto:tlee0813@hot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고려대 교우회 송년의 밤 참석자들

### 노인회 신임회장 취임식 28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이학렬)는 오는 28일 토요일 앤도버에 위치

한 국제선교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신, 구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노인회 각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송년회를 개최한다.

이학렬 회장은 "많은 지역 한인 노인들이 참석해 훈훈한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다" 고 전했다. 뉴잉글랜드한인회는 이날 노인회에 식사를 후원한다.

일시: 2013년12월28일(토)

오전11시-오후 3시

장소: 국제선교 교회,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North Andover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버스안내: 성요한교회에서 오전10시30분에 떠나 오후 3시30에 귀환.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mailto: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mailto: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http://www.btpusa.net)

**헤민한의원**  
PARK Acupuncture & Herbal Medicine  
원장: 박미경 (Mikyung Park)

여성질환 (통경, 산후보양, 갱년기장애)  
한방다이어트, 소화기질환, 통증 및 운동손상, 알러지, 백염, 천식, 수험생보양 및 허약아 체질개선

"한방다이어트로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도 회복하세요."

경포푸로진료  
(세부시당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류여약: 617-787-0789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elmont, MA 02156  
<http://www.acupark.com>

# 매사추세츠 병원 재정상황 공개하라

**간호사 노조 병원 재정공개법 입법화 추진  
10만명 넘는 유권자 서명 확보 의회 상정 가능  
의회 부결 시에는 1만 서명 더 모아 주민투표에 부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주내 최대의 간호사 노조가 매사추세츠 병원들의 재정수입을 공개하고 병원 최고 경영진들의 보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병원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간호사협회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주 윌리엄 갈빈 주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청원서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병원의 재정공개 의무화하며 부유병원과 가난한 병원들 사이의 간극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법은 병원의 해외 계좌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병원 경영층의 월급을 최저 봉급자의 100배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병원의 수익을 펀드에 적립시켜 열악한 환경의 병원을 돕는데 사용토록 했다.

컨톤에 사무실을 둔 간호사노조의

대변인 데이비드 쉴드미어 씨는 “병원이 얼마만큼이 재산이 있는지 주민들이 알게 하고 이 수익들이 병원의 부를 늘리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토록 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쉴드미어 대변인은 일부 병원들은 상당수의 자금을 해외계좌에 보관해 놓고 있으며 이 자금의 양과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 CEO들은 최저 임금 직원의 100배가 넘는 2백만불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일부 병원엔 적자에 허덕이는 반면 부유병원들은 수익이 8%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두번째 청원서에서 노조는 간호사 당 환자 배당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 제정 청원은 간호사 노조가 벌이는 첫번째 캠페인이다.

매사추세츠 병원협회는 “병원의 보상과 영업이익에 대해 강제적인 제

한을 두는 것” 에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협회는 이미 병원들이 충분한 양의 재정 정보를 주정부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현재의 법안에 더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은 “이중적이 불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주 감독기관들이 병원의 수익률과 경영층의 보상 수준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브라이언 맥니프 주무부 대변인은 간호사 노조의 청원이 접수됐음을 확인하고 다음달 주 의회 상정이 가능한 충분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 의회는 5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법안을 부결하거나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개정하는 경우 노조는 1만 1천 유권자 서명을 더 확보해 오는 11월 주민투표 안으로 유권자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노조는 주민투표안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선보였다.

hsb@bostonkorea.com

# 오바마, 온안고 삼촌과 같이 생활 인정

**백악관 처음에는 <만난적 없다>에서 후퇴**



오바마 대통령이 온안고 오바마 삼촌과 케임브리지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지난 1980년대 하버드 법대 입학 준비하면서 자신의 케냐 삼촌인 온안고 오바마와 일정 기간 지낸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지난 2년전 백악관이 삼촌과 만난 기록이 없다고 잡아떼던 것과 상반된 이야기다.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과의 관계는 지난 3일 보스톤 이민 법원에서 삼촌 온안고 오바마의 추방명령 재판이 열리면서 다시 조명됐다. 온안고 오바마는 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유명한 조카와 케임브리지 소재 아파트에서 3주간 같이 지냈다고 언급한 것이다. 당시 온안고 오바마는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신분의 상태였다.

5일 백악관은 언론 담당관이 충분히 오바마 대통령과 삼촌의 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지난 2011년 보스톤 글로브의 물음에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언론 담당관은 과거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슈츠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하버드 법대 입학을 위해 케임브리지에 왔을 때 처음 만났다. 대통령은 아파트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머물렀었다. 이후 이들은 몇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으며

법대를 졸업하고 서로 만나지 못했다. 대통령은 약 20년간 그를 보지 못했으며 대화를 나눈 것도 10년이 지났다.” 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한 이번 온안고 오바마의 이민재판이 백악관이나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새삼 강조했다.

온안고 오바마는 지난 2011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하면서 추방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들어났고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도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온안고 오바마는 체포 직후 경찰관에게 “백악관에 전화해야겠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9세의 온안고 오바마는 이민 법정에서 “조카를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 이라고 밝혔었다.

이민 판사 사피로 씨는 온안고 오바마에게 계속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영주권 허가 판결을 내렸다.

hsb@bostonkorea.com

# 펜웨이 파크에 눈썰매장 만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레드삭스 구단은 펜웨이 파크내에 ‘몬스터 슬레드’ 라 불리는 20피트 높이의 눈썰매장을 만들어 12월 28일부터 1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 눈썰매장은 펜웨이 그린 몬스터 근처에 위치하며 약 75피트 길이의 경사로 만들어지며 5개의 분리된 슬라이딩 구역에서 눈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몬스터 슬레드는 약 100여명에 달

하는 그룹에게 시간 단위로 렌탈할 예정이다. 썰매와 튜브는 개인이 지참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공된다. 보스톤 주민들을 위한 자세한 티켓 구입 방법은 시에서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시티카드 회원들은 오는 12월 28일 스케이트와 눈썰매를 펜웨이에서



즐길 수 있다. 회원들은 800-301-3327에 전화해 썰매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성진우 카이로프랙틱**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증을 느끼십니까?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
- 두통
- 어깨, 둔부, 무릎 통증
- 허리와 목 통증
- 뇌졸중 신경통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6 Merrimack Street  
Methuen, MA 01844  
(978) 688-6999  
www.DrJinSung.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으신다  
매스헬쓰도 받으신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명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주 미래에 삼림 피해 심각할 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삼림에 대한 보호와 규제 없이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삼림 자원의 훼손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하버드 대학교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공동으로 2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의 삼림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의 경제 개발 속도와 삼림 개발 경향을 바탕으로 앞으로 50년 뒤에 매사추세츠 주의 삼림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해 보는 연구였다.

연구진은 삼림에 대한 보호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까지 4단계로 시나리오를 나누어 50년 뒤의 모습을 예측했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대지를 에이커 단

위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개발 과정과 목재 채취량, 자연 보호 정도와 토지의 쓰임새 등을 수치화 하여 컴퓨터로 기록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하버드 생태 연구소의 조나단 톰슨 교수는

“이런 종류의 연구가 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사추세츠 주는 인구도 적당히 밀집되어 있고 숲도 많은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개발 및 변화하고 있어 연구에 최적의 장소였다” 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보호 없이 현재와 비슷한 속도로 경제 성장이 진행된다면 50년 뒤에는 무분별하게 삼림이 파괴되고 이런 피해는 복구될 수 없는 심각한 환경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삼림 훼손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주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하버드 대학교의 케티 팰런 램버트 교수는 “숲은 단순히 나무를 모아놓은 곳이 아니다. 숲은 매사추세츠 주 경제와 자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 레드삭스, 더 많은 술을 팔기 위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보스톤 레드삭스가 야구 경기 중에는 물론이고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서 열리는 이벤트에서 더 많은 주류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보스톤 헤럴드는 레드삭스가 펜웨이 파크에서의 주류 판매 확대를 위해 보스톤 시와 협의중이라고 보도했다.

헤럴드에 따르면 레드삭스는 펜웨이 파크 내에 있는 주류 판매소의 숫자를 늘리고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길 원하고 있다. 이는 펜웨이 파크에 인접한 야기 웨이에서의 주류 판매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펜웨이 파크는 현재 경기장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주류 판매를 시작한다. 보통 야구 경기가 시작하기 90분 전에 펜웨이 파크의 게이트가 열린다.

펜웨이 파크 개장과 함께 판매되기 시작하는 주류 중 독주는 경기 시작 후 2시간, 혹은 7이닝 중반까지만 판매된다. 와인과 맥주는 경기 시작 후 2시간 30분, 혹은 7회가 끝날 때까지 판매되고 있다.

레드삭스는 펜웨이 파크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의 판매를 7회가 끝날 때까지, 혹은 경영진이 상황에 따라 재량껏 판단해 판매하길 원하고 있다. 레드삭스의 대변인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은 주류 판매점 앞에 늘어서 있는 줄을 줄이고, 기존 판매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보스톤 시의 민간인 감시 단체인 보스톤 재무 위원회의 매튜 카힐 의장은 “아마 한 달 내로 레드삭스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 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스톤 재무 위원회는 레드삭스와 보스톤 시의 계약은 공개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윤의 사회 환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레드삭스가 홈구장에서 더 많은 주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 보스톤레드삭스 티켓 14일부터 판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4년 보스톤레드삭스 시즌 티켓이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과거 레드삭스 티켓은 판매 시작 몇 시간 만에 모두 매진되는 등 인기였

나 2012년 풀치로 전략하며 작년 티켓 세일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올해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티켓 판매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켓은 레드삭스닷컴 또는 888-REDSOX6 전화로 구입가능하다. 이

번 판매기간 동안에는 오는 4,5월 레드삭스 홈경기 티켓을 구입할 수 있지만 개막식, 양키스 게임, 패트리어츠데이 게임 등은 구입할 수 없다. 레드삭스는

추첨을 통해 추후 이 티켓을 판매한다. 이번 판매기간 동안에는 “삭스 세이버” 라는 특별한 게임 티켓도 판

매한다. 이 경기는 8-50%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 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 뉴튼, 카요티(Coyote) 출몰 경고

현관 아래 주의깊게 살피고  
작은 애완동물은 실내 보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기자 = 뉴튼 경찰은 최근 자주 출몰하는 카요티(Coyote, 일명 코요테)에 대해 주민들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다음달이 카요티의 짝짓기 계절인 만큼 카요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카요티의 목격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뉴튼을 비롯한 몇몇 지방 공무원들은 교외 거주자들이 카요티가 뒷마당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데 익숙해지면서 목격 보고는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 통제업무를 맡고 있는 탈프 토리스는 “뉴튼에는 1970년대부터 카요티가 있었고 현재 약8~12마리 정도의 카요티가 살고있다” 며 실제로 신고 전하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관 밑에 있는 카요티를 조심하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고양이와 작은 개들은 집안에 들여놓을 것을 권했다. 다행히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카요티에 물리는 것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 고 토리스는 말했다.

사람과 카요티의 공존을 장려하기

위해 일하는 연구원과 교육자들의 국가연합인 ‘프로젝트 카요티(Project Coyote)’의 매사추세츠주 대표 존 매거래니스는 벨몬트에서 카요티와 사는 법에 대하여 자주 강연을 했다.

그는 “일년 중 이 시기에는 나뭇잎이 없어서 카요티가 쉽게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카요티들은 밖으로 나와 겨울을 대비할 음식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봄에 태어난 새끼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다.

“그들은 이 시기에 매우 바쁘다”고 매거래니스는 말했다.

카요티를 마주친 사람들은 소리치거나 손을 크게 흔들고 냄비를 세게 두드려서 또는 힘차게 다가서는 등의 행위로 그들을 당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상을 입지 않은 건강한 카요티들은 사람들을 겁내어 도망갈 것이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또다른 팁은 음



2007년 캠브리지에서 목격된 카요티의 모습

식을 밖에 두지 않는 것이다.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맛있는 먹이감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작은 애완동물들은 그들의 저녁식사로 보일 수 있으며, 쓰레기수거 몇 시간 전에 쓰레기를 미리 밖에 내놓는 것은 카요티에게 “길거리 뷔페” 일 뿐이라고 주 야생 및 수산부(Division of Fisheries and Wildlife)의 대변인인 매리언 랄슨이 말했다.

매사추세츠주에 얼마나 많은 카요티가 서식하고 있는지 주 당국은 추산하지 않고 있으며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목격된 카요티를 추적하지도 않는다고 랄슨은 말했다. 하지만 카요티들은 1940년대말~1950년대 초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고 사람을 공격한 것은 오직 5건만 보고되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hsoh@bostonkorea.com

# 체중증가 없이 할리데이시즌 즐기는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할리데이시즌이 코앞에 닥쳤다. 즐거운 파티와 특별한 음식들 속에서 한 가지 고민은 체중증가다.

미국 영양 및 식이요법학 학회(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에 따르면, 할리데이시즌 동안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체중이 약 1파운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하게도, 만약 해마다 그 몸무게를 빼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10년 후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체중이 불어서 새해를 맞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할리데이시즌 중 살이 찌는 것을 피하는 간단한 전략 세 가지를 공개한다.

▶ 빨간접시에 담아 먹어라.

윤전중 빨간불을 보면 멈춘다. 잡지 Appetite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빨간 접시에 음식을 먹는 것도 식사량에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연구진은 109명의 사람에게 설문 조사를 할 동안 하얀색, 파란색과 빨간색 접시에 담긴 프렛즐을 먹도록 했다. 프렛즐이 빨간색 접시에 주어진 사람들이 하얀색이나 파랑색 접시에 프렛즐이 주어진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양을 먹었다. (세 그룹 사람들의 배고픈 정도는 배제했다).

연구진은 빨간색이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배운 습관에 의해서 회피반응을 끌어낼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 좁고 긴 와인잔을 사용하라.

와인을 따를 때 와인잔을 잡는지 아닌지에 따라, 또 와인잔의 모양과 와인의 색깔이 마시는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와인을 좀더 따르게 하고 더 많이 마시게 하는 함정을 밝혀냈다.

이번 할리데이시즌에는 넓은 것 보단 좁고 긴 와인잔을 사용하자. 또 와인을 따를 때 잔을 잡지 말고,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 이때 색상 대비에 유의하면 와인 양과 관련된 칼로리를 체크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 뷔페에서 건강식이 진열된 쪽부터 시작하라.

뷔페 테이블에 음식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당신 접시에 담은 음식도 달라진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 과일이 가장 먼저 놓여있을 때 86퍼센트의 사람들이 과일을 담아가는 반면, 과일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 경우는 54퍼센트만이 과일을 담아갔다.

“먼저 가져간 각각의 음식은 다음에 무슨 음식을 가져갈지 결정하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처음 가져간 음식은 다음 것을 선택하는 계기가 된다.” 라고 이 연구의 저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와 앤드류 행크스 박사가 주장했다.

따라서 할리데이 뷔페에 초대 받는다면, 뷔페의 어느 테이블이든 건강에 좀더 좋은 음식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접시를 채우기 시작할 것을 권한다.

hsoh@bostonkorea.com



할리데이시즌에 좁고 긴 와인잔을 사용하는 것이 체중증가를 피하는 한 방법이다

## 숫자 퍼즐(Sudoku)

정답

▶ 문제는 34면에 있습니다.

1	7	9	6	2	5	3	8	4
6	8	5	4	9	3	1	2	7
4	3	2	7	8	1	6	9	5
3	1	7	5	4	2	8	6	9
8	2	4	1	6	9	5	7	3
5	9	6	3	7	8	2	4	1
7	5	8	2	3	4	9	1	6
9	6	1	8	5	7	4	3	2
2	4	3	9	1	6	7	5	8

대한민국 유일 5대 포털에서 만나는 여성지!

USA

# 레이디경향



레이디경향  
미주판이  
지금!  
광고신청하세요

배포처 접수중

광고문의

617-775-8474

2013 레이디경향 미주 통합판 발행

레이디경향 미주판은 '종합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20대 중반에서 60대의 모든 한국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화제 및 생활문화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스톤,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시카고, LA, 아틀란타, 하와이, 달라스, 시애틀

성경만을 본딴 기준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반: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제자훈련: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어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새생활 센터 / 17년간 만민들을 위해 매달 무료 진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주 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 넬슨 만델라 추모식 전 세계 애도 속 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공식 추모식이 지난 10일 오전 11시 요하네스버그 소웨토의 FNB 축구경기장에서 수만명의 남아공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91개국 정상과 10명의 전직 국가 수반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는 지난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총리와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 규모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추모식에서 헌사를 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 등도 참석했다.

특히 수만명의 남아공 국민들은 이날 오전 내리는 빗속에서도 경기장에 자리를 잡고 '건국의 아버지' 만델라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11일부터 사흘 동안에는 만델라 시신 조문이 이뤄질 예정이며, 15일에는 만델

라의 고향 쿠누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만델라 장례식에는 7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95세를 일기로 타계한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지도자로서 백인의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 정권을 종식하는 민주화 투쟁을 이끌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약 27년간 복역했다.

1990년 출소 후, 인종차별을 불식한 민주헌법의 제정을 위해 데 클레르크 총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평온한 사회로의 이행을 부단히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두 사람이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94년 약 65%의 지지율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만델라는 인권 투쟁과 함께 관용과 화합의 정치를 편 위대한 정치인으로 남아공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아왔다.

hsqh@bostonkorea.com

## 연봉1위 전공은... '석유공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에서 졸업 후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전공은 석유공학으로 조사됐다.

USA투데이는 지난 6일 조지타운대 연구팀이 대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자료를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석유공학 전공자의 평균 연봉이 12만달러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약학(10만5000달러), 수학·컴퓨터공학(9만8000달러), 우주

공학(8만7000달러), 화학공학(8만6000달러), 전기공학(8만5000달러), 해양공학(8만2000달러) 등 이공계 전공이 뒤를 이었다. 기계공학, 금속공학, 광산개발공학도 연봉 8만달러로 상위 10위 전공에 꼽혔다.

반면 최저 연봉을 기록한 심리학과 종교학 등 인문사회 관련 전공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심리학 전공자의 평균연봉



미국 대졸자 정규직 근로자 임금 분석 결과 석유공학 전공자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2만9000달러로 금전적 보상이 가장 열악했다. 이어 유아교육학(3만6000달러), 신학·종교학 및 사회복지학(3만8000달러), 사회사업학(3만9000달러) 등도 최하위권을 이뤘다. hsqh@bostonkorea.com



11일 넬슨 만델라 추모식에서 헌사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 미 지방정부 최저임금 잇따라 인상 조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즈는 지난 9일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지만 최근 주·시 정부가 이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워싱턴 시의회는 워싱턴

의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11.5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인근 지자체인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조지 카운티는 최근 사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압박에도 연대해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향후 4년간 11.5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공항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로 최저임금을 주법에 정해진 9.19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올해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가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도 메릴랜드주, 사우스다코타주 등 최소 5개 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미국 지방정부들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낮은 최저임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진보센터(CAP)를 방문한 자리에서 "빈부격차 심화가 미국의 건국이념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치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hsqh@bostonkorea.com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 병원 재활의학과 수퍼바이저  
워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래 교수  
삼육대학교 외래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학과장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문혜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09) 2013년 마지막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마음이 바빠집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이민 생활에 용기를 준 친구에게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해 봅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도 재삼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이 가기 전 개인재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야 할 몇 가지를 순서 없이 함께 알아 봅니다.

### \*401(k)을 최대치로 증가

50살 전까지는 투자 한도액인 \$17,500까지 은퇴 플랜에 넣을 수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사람은 추가 금액 \$5,500을 더하여 \$23,0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세금 혜택을 바로 받습니다. 연봉이 \$100,000이라고 가정하면 세금 보고할 때 \$23,000을 제하고 \$77,000에 대해서만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 \*학자금 529 플랜

아이들 학자금 준비는 529를 추천합니다. 학자금 529 투자로 불어난 수익금을 학비, 기숙사비, 책값, 등 교육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일체



세금이 없습니다. 학자금 529는 미국 어느 대학을 가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이 사정상 대학을 가지 못해도 동생 앞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학자금 529를 이용하면 주정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시간에서 학자금 529에 투자하면 \$10,000까지 주 수입세 4.35%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투자와 동시에 수익률이 4.35%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나이가 70.5세가 되면 IRA, 401(k), 403(b), TSP 등 여러 은퇴자금에서 정해진 최소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는 금액이 \$10,000인데 그만큼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가 되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합니다.

RMD로 나온 돈을 교회나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하면 \$10,000까지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2013년 총수입

이 \$80,000 그리고 RMD로 나오는 돈이 \$50,000이라고 가정할 때 \$50,000을 다니고 있는 교회나 공부했던 모교(대학교)에 직접 기부하면 세금보고는 \$80,000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 \*조정된 수입을 감소(adjusted gross income, AGI)

조정된 수입이 \$250,000이 넘으며 3.8%의 세금이 부가적으로 적용됩니다. 투자 수익이란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net capital gains, dividends, interest, rents and royalties,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세금을 받지 않으려면 투자에서 나오는 수입을 적게 해야 합니다. 한 예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는 주식을 자주 사고팝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은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 각자가 나누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사고파는 횟수가 적으므로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다른 예는 직장인은 401(k), 자영업인은 SEP 플랜, 등에 투자합니다. 수입이 매우 많은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은퇴 투자 (defined-benefit retirement plan, DB)로 수입의 \$200,000까지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과 손실

투자 수익과 손실은 서로 상쇄가 됩니다. 만일 투자 손실이 더 크다면 매년 \$3,000씩 수입 금액 (ordinary income)에서 뺀 나머지를 수입으로 보고합니다.

### \*AMT(alternative minimum tax)

올해는 과거와 비교해서 AMT가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입이 높은 사람은 여러 곳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투자 수익

결혼한 사람의 수입이 \$72,500 이하이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0%입니다. 투자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없이 팔아서 수익금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14,000 선물

올해는 \$5.25 million 그리고 2014년에는 \$5.34 million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19개 주는 연방정부에서 면제하는 상속한도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매년 \$14,000씩 개인 누구에게나 증여세 (gift tax)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부부가 한 자식한테 \$28,000을 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간단한 재정 계획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하버드지점 Grand opening**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구)샤부야 (617) 864-6868  
 (구)신라야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복싱면과 톤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편환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키자재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함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종현**  
 교정 전문의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8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 (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9pm), (After 9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http://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1)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인 김대한씨는 회사 담당자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직원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준다하니 신경 안쓰여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직원의 근로소득(급여)에 대한 세금징고를 회사가 대신해줍니다.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연말정산자료를 기초로 지난 1년간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해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받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차액을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액에 반영해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이번주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항공료등 부임여비

회사는 김대한씨의 한국행 항공료와 기타 이사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이 경우 항공료 등이 김대한씨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한국의 세법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즉, 직원이 회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경비 중 회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의 항공료 등 부임비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인지는 논란이 있는데 회사의 사규, 고용계약서,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으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 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본다' 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고용관계없이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해 입국한 김대한씨의 경우 보전받은 항공료 등의 이사비용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회사가 보전해준 이사비용 중 요건을 갖춘 이사비용은 직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비용이 김대한씨의 한국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면, 김대한씨는 미국의 세금을 신고할 때는 그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을 보전받은 김대한씨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이사비용이 없으므로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인식할 이사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대한씨가 항공료 등 이사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김대한씨는 본인이 부담한 이사비용 중 요건을 갖춘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Deduction for AGI). 이때 한국행 항공료 등은 김대한씨의 한국소득과 관련된 것이므로 만약 김대한씨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면, 그 비율에 상당하는 이사비용은 다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Denial of Double Benefit).

### 2. 사택

김대한씨는 회사로부터 생활이 편리하고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의 아파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김대한씨의 소득에 포함되나요?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거나 ②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직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대한씨가 제공받은 아파트가 위에서 말한 사택에 해당하면 거기서 얻은 이익은 김대한씨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제공한 주택에서 얻은 이익이 직원의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 - 첫째;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둘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셋째; 근로조건으로 사택을 제공받는다라는 것을 직원이 수락할 것 - 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 김대한씨와 같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의 아파트를 제공받은 경우는 위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대한씨는 아파트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김대한씨는 그 아파트의 공정한 임차료를 해외주거비용에 포함시켜 'Foreign Housing Exclusion'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①자녀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②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 는 것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자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녀와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거주자' 의 경우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미만이면 김대한씨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붙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석**  
스킨타우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원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 H MAR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DEC. 13, 2013 - Dec. 19, 2013**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Free 2014 CALENDAR**  
 Show us your Smart Card and you will receive the beautiful 2014 Hmart Calendar. 특별한 분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2014년 H마트 탁상용 달력

## Countdown to CHRISTMAS

The best gifts are on sale early, plan ahead and get your gifting going!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의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도 H마트에서 준비하세요!

**HAIOREUM KOREAN HONEY CITRON TEA**  
 해오름 유자차 2.2 lbs.  
**\$4.99**

**ZOJIRUSHI ELEC. RICE COOKER**  
 조지루시 전기밥솥 NP-HBC18XA/ea.  
**\$299.99**

**PEAR**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22.88** box

**Best Gift**  
**상화탕**  
 KWANGDONG HERB TONIC DRINK  
 광동 상화탕 3.3fl.oz. x 10bts/box  
**\$4.99**

**Best Gift**  
**BBQ**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벌집 소 등심 스테이크  
**\$4.99** lb.

The Most **Delightful & Delicious Gift Ever!**  
 "Fresh meat takes gift giving to another level. A great gift for family, friends and business!"  
 H마트 적응상품세트도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세요.

1호 기념세트 2호 기념세트

\*사전 제작 의뢰 가능합니다.\*

**H MART** 와 함께하는  
**FESTIVAL OF THE KOREAN ASAN PEARS**  
 Korea's Finest from the city of Asan

So Sweet, So Fresh!

**December 20 - 22, 2013 at Hmart Burlington Store**  
**우리농산물 아산신고배 판촉전**  
 Treat your family with delicious, yet so healthy Korean Pears from the city of Asan, Korea. H마트에서 준비한 한국 아산신고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한국산 아산 신고배를 맛보세요!

**Big SAVINGS FOR SMART SHOPPERS LIKE YOU!**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b>Beef Knuckle Bones</b> 사골 lb. <b>\$0.99</b>	<b>Thin Sliced Pork Single Belly</b> 대패 삼겹살 lb. <b>\$7.99</b>	<b>HAITAI Matdongsan Snack</b> 해태 맛동산 14.81oz. <b>\$2.99</b>	<b>HAIOREUM Soybean Paste</b> 해오름 초가집 시골된장 6.6 lbs. <b>\$7.99</b>	<b>BEYOND THE OCEAN Fried Fish Cake</b> 바다너머 종합어묵 1.1 lbs. <b>\$3.99</b>
--	---	--	---	--

<b>Coimo Sweet Potato</b> 코이모 고구마 lb. <b>\$1.28</b>	<b>Fuji Apple</b> 후지 사과 lb. <b>\$0.99</b>	<b>JINGA/SOONYEOWON Tofu</b> 진가/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6oz. <b>\$0.88</b>	<b>Garlic</b> 마늘 5pcs/pkg. <b>2\$1</b> for	<b>Pork Single Belly Chunk</b> 수육 삼겹살 lb. <b>\$3.99</b>
---	---	--	--	---

<b>Beef Heel Meat</b> 소 사태 lb. <b>\$5.99</b>	<b>SUHYUP Sliced Pollock</b> 수협 절단동태 650g <b>\$5.99</b>	<b>Dried Anchovy (Dashi)</b> 다시 멸치 3.3 lbs. <b>\$24.99</b>	<b>TONGTONGBAY Frozen Small Octopus</b> 통통배 싱상낙지 1.5 lbs. <b>\$5.99</b>	<b>Norwegian Mackerel</b> 노르웨이산 고등어 300-500/lb. <b>\$1.99</b>
--	---	--	---	---

<b>Cod Fish</b> 대구 lb. <b>\$3.99</b>	<b>OSAKI Fish Cake</b> 오사끼 게맛살 1.1 lbs. <b>\$5.99</b>	<b>HAIOREUM Roasted Seaweed</b> 해오름 밭도둑 도시락 김/피래김 0.15oz. x 8ea./pkg. <b>\$2.49</b>	<b>PALDO Jja Jang Men/Gomtang Men</b> 팔도 일품 짜장면/설렁탕면 150-200g x 4-5ea./pkg. <b>\$3.99</b>	<b>HAIOREUM Natural Sea Salt (Coarse)</b> 해오름 굵은 소금 10 lbs. <b>\$5.99</b>
--------------------------------------	---	---	---	---

<b>AJINOMOTO Gyoza Dumpling</b> 아지노모토 고자만두 All Varieties - 24.7oz. <b>\$5.99</b>	<b>MUKBO DAEJANG Olive Oil Roasting Seasoned Green Laver</b> 먹보대장 올리브유로 볶은 파래저반 70g <b>\$1.99</b>	<b>NONGSHIM Garlic Teriyaki Udon Paste</b> 농심 갈릭 데리야기 생생우동 9.17oz. x 4ea./pkg. <b>\$9.99</b>	<b>OTTOGI Tteokbokki</b> 오토기 떡볶이 피자/쌀 300g <b>\$3.49</b>	<b>OTTOGI Pizza-ghetti</b> 오토기 피자케티/스파게티 해물/모짜렐라 치즈/새우크림 265-360g <b>\$3.49</b>
--	---	--	--	---

<b>HAIOREUM Peeled Split Mung Bean</b> 해오름 간녹두 4 lbs. <b>\$5.99</b>	<b>DOMINO Sugar</b> 도미노 설탕 4 lbs. <b>\$1.99</b>	<b>KUMKWANG Bio Soup Bowl</b> 금광 바이오 탕기 ea. <b>\$2.99</b>	<b>Massage Slippers</b> 지압 실내화 pair <b>\$3.49</b>	<b>HELLO HOME Two Handle Wok Pan</b> 헬로홈 투핸들 워팬 32cm/ea. <b>\$9.99</b>
---	---	---	---	--

H마트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우수 농수산물 특판전  
**WELCOME TO THE GyeongBuk**  
 TRADITIONAL KOREAN MARKETPLACE  
 Come enjoy the finest products of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in South Korea. Every year Hmart brings you their finest quality products.  
**DECEMBER 13 - 15, 2013 ONLY AT HMART BURLINGTON**

**Pride GyeongBuk**

all natural certified delicious  
**HMART ORGANIC**  
 H마트 유기농제품으로 더욱 건강하세요.

**STONYFIELD Organic Milk** 스톤필드 유기농 우유 All Varieties - 64fl.oz. **\$3.4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H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S / MA-128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 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S / MA-128S)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Hmart Cambridge store COMING SOON\***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H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www.facebook.com/hmartofficial**  
 H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The following sal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our website www.hmart.com



# 렌트비 상승에 허리휘는 중산층

## 세입자 25% 수입의 반 렌트비 생활비 부담, 홈리스 증가 하버드 보고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매사추세츠를 포함, 미 전역 렌트비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홈리스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하버드 대학의 주택연구 학회 조인트 센터 (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는 지난 9일 이같은 보고서를 통해 매사추세츠주와 미 전역 세입자의 1/4이상이 수입의 반 이상을 렌

트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는 10년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려되는 상황은 최근 주택 붕괴와 포클로저 대란의 영향으로 분석하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렌트비의 평균 가격은 한달에 \$1,000로, 미국에

서 가장 높은 하와이(\$1,300)와 워싱턴 D.C.(\$1,180), 캘리포니아(\$1,140), 메릴랜드(\$1,100), 뉴저지(\$1,100)에 이어 여섯번째로 높다. 또한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의 평균 렌트비는 \$1,800로, 미국 메트로폴리탄 지역 중 세번째로 높으며 10년 전 \$1,300에 비해 38% 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렌트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산

층들은 수입의 1/3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고 생활한다고 보고서는 말하며 홈리스가 늘어나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고 봤다. 건강이 악화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껌짜없이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연소득이 1만 5천불 이하인 저소득 가정의 70% 이상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반

면, 연소득이 7만 5천불 이상인 고소득 가정은 렌트비가 소득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소득 대비 렌트비 지출이 커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 및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10년 이래 매사추세츠주 셸터와 거리에 홈리스 수는 14%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의 경우 주긴급보호소내 홈리스 가정은 하루종일 늘어난 추세이며 하룻밤에 묶는 숫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달 초 14억 달러를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아파트 건설 예산에 편성, 사인을 마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보스톤 대변 그룹, 홈 포 패밀리(Homes for Family)의 대표 리비 헤이스 씨는 “셸터와 보호소에 몰려드는 홈리스 가정을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인 보스톤 지역사회 개발 조처 (Action for Boston Community Development)의 존 드류 대표는 “매사추세츠 주의 렌트비 상승은 고소득 기술자 및 생명공학, 전문직 종사자들의 유입에 따라 아파트를 아파트보다 고급 아파트 건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hckim@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토샵 튜터링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mailto: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 압구정

Apgujung 1114 Beacon St. Newton, MA 02461

Tel. 617.527.7888 or 7999

Fax. 517.527.7788

영업 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3:00, 4:30~10:30  
금요일~일요일: 11:30~3:00, 4:30~11:00

Premium

최·고·급

양념갈비와 생갈비 그리고 육수불고기 & 갈비찜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소주(참이슬)  
\$6.99

불타는 금요일부터  
아쉬운 일요일까지  
마음껏  
즐기시라고  
압구정이 씁니다!!!



- 런치 스페셜 짬뽕 \$9.95
- 강호동 백정 불판 사용
- 단체행사를 위한 30인, 50인 연회석 (단체예약 받습니다)
- 파티룸 가라오케 완비

- 100대까지 수용가능한 여유있는 파킹 공간
- 하바드에비뉴에서 차로 10~15분 뉴튼센터에서 5분, BC에서 10분 한인성당에서 10분 거리

웨이터, 웨이트레스 / 중화요리 전문 요리사 구함 T. 617-319-2833



# 낭만에 대하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객원 칼럼니스트)

교회 박집사가 당황했다. 날계란 등실 떠있는 '모닝커피'를 본 모양이다. 젊은 그에게 검은색 커피에 주황색 계란 노른자는 황당한 경험이었을 게다. 듣던 모두가 웃었다. '옛날식 다방'에선, 커피에 날계란을 '탁' 소리나게 깨서 띄워주던 '모닝커피'가 있었다. 비위가 웬간 하지 않고는 '모닝커피' 제대로 즐길 수 없다. 맛은 매우 의미(味)심장한데 개운치는 않았다. 누구는 고향과 음식에 대한 기억을 통증이라 했다. 현대 이런 경험은 더한 통증인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고문拷問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올라가는 이층 목조계단과 시끄럽게 들리던 가요소리. 그리고 담배연기, 특유한 커피와 곰팡이냄새, 시끌벅적한 실내 소음이 뒤엉켜 있었다. 이게 통증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아니면 아픈 그리움인가?

최백호가 몇년전에 낭만에 대하여 를 읊조리듯 노래했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나마는' 하고 노래했던 거다. 노래 시작이 아련하고, 늦가을 비라도 젖는다면 그럴싸 하다. 통증처럼 찾아온 옛날식 다방이다. 게다가 레코드판까지 된다. '옛날식 다방' 이 아직 한국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

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릴 들여보렴

...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야 있겠나마는  
웬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나마는  
웬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곳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이습우회에서 읽었다.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를 따먹고자 했다. 현대 문제는 아무리 기를 쓰고 뛰어 올라도 포도를 딸 수 없었다.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여우가 한마디 했다. '저 포도는 아마 무지 시든지 떨어져야.' 역시 여우는 현명하다. 그렇게 마음 먹는게 편하다. 맛있는 포도라면 아쉬움은 더 할테니 말이다. 누구는 지나간 청춘이 그리워 한다. 누구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나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돌아가 봐야 여전히 궁상일테니 말이다. 어차피 돌아 갈수 없는 바에는 마음 고쳐 먹고, 여우가 된다.

고은 시인은 '찬 가을 한 자락이 은은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고마운 일이다.' 고 읊었다. 늦가을 바람 잦아들면 겨울이다. 마음까지 시린 계절이 온다. 나한테야 아랫도리 바지가랑이로 찬바람이 훑고 올라 온다. 내 마음이 이럴진대, 아내는 더 할게다. 게다가 아내는 유난히 추위를 탄다. 그렇다고 더위를 잘 이기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마음은 더 시릴 게다. 현대, 내 첫사랑 소녀는 누구였더라? 누구든지 늙어가고 있겠지.

올해에도 어김없이 집 창문에 비닐을 쳤다. 온실처럼 황소바람은 막아 준다. 그래서 그런가, 햇빛이라도 달게 들어서면 포근하다. 전기히터 열이 써늘함을 눌러 이길게고, 햇살은 창문을 넘어 널리 퍼진다. 잎사귀 떨근 앞마당 나무가지 사이로 늦가을 햇살은 그윽하다. 그나마 고마운 일이다. 보스톤의 가을 낭만이다. 참 아내 첫사랑은 누구였더라. 아내가 내게 말해 줬던가? 그게 나였나? 아내가 피식 웃는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네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전도서 11:9)



하버드, 프린스턴, 컬럼비아 등 아이비리그 대학과 MIT, 스탠포드에 90% 합격률을 유지하는, 보스톤의 최강 강사진으로 구성된, **선진학원**에서 다음 강의를 오픈합니다.

방학 내용	기간	강좌 내용	강사진
땡스기빙	11/23 ~ 12/2/2013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9차생까지)	Olivia (에버렛대학, 10년간 보스톤 및 서울 유명대학 강사유급했다)
겨울방학	12/20/2013 ~ 1/5/2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9차생까지)	Richard (Colby대학, 10년간 보스톤 및 서울 유명대학 강사유급했다)
봄방학	3/5 ~ 3/23/2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9차생까지)	Daniel (MIT 수학과 졸업, 에버렛대학, 보스톤 지역 10년간)

\* 상기 기간은 개별학교의 Break 기간이 다르므로 학생별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영문학, 미국 역사, 세계사 박사 소지자로서 선진학원 다년간 강사 경험자 참여함. 물리, 화학, 컴퓨터, 라틴어 강의도 합니다.

년중 매주 월,수,금(4~6시), 토,일 (10~12시, 1~3시) :SAT 그룹강의 개설:클래스당 3명 이상시 강의 개설함.

학부모님 학원 예약 방문시 무료 대입및 고입 상담

차별화된  
특강

- 강의 기간동안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가이드 및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투어도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워 기간동안 그룹 강좌 외에 개인 강좌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과목 강의 가능함.
- 개인 학생별 상담하여 중학교,고등학교 수업기간별 마스타 플랜 작성해줌.
- 미국 현지의 최고 수준의 과목별 강의와 맞춤형 Extra Curriculum 제공

1050 Waltham St. Suite#320 Lexington, MA 02451

781-863-0677 icarus766@gmail.com

송영두 박사의  
조기유학 물고 답하기

송영두 박사 (보스톤유학원 원장)  
미국 617-491-0041 / 서울 02-579-9731  
Email: ysong@bosec.com / www.bosec.com

## 보딩스쿨에 늦게 지원하는 경우

**질문:**  
저의 딸은 국제고 2학년(11학년)입니다. 토점은 117점이고 올 1월 28일에 본에 sat1점수는 2100점입니다. gpa는 3.9/4.4입니다. 학급회장이며, 디베이트서클장입니다. 디베이트와 모의유엔에 많은 수상실적이 있으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오래전부터 유학을 원했는데 드디어 아이의 고집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0학년에 지원을 하고 올 9월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20위권 정도의 보딩은 마감이 되 버렸더라고요... 아이가 메일을 여러군데 보내서 몇군데에서 서류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인터뷰를 잡아주지 않거나 인터뷰 후 기다리라고만 하고 빠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미 마음이 떠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자녀는 학업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만 이미 정시 지원 시

기가 많이 지나고 거의 여름 방학에 들어가므로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20위권 이내 학교 들은 자리가 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자리가 나더라도 이미 우수한 대기자가 많아서 그 대기자들과 비교가 될 것 이므

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고2면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는 학년이라 난감하시겠습니다. 상위권 학교로 유학을 가야하고 2013년 9월은 너무 늦다면 차선책은 2013년 1월부터 다니는 것으로 지원을 해 보는 것 입니다. 이



럴 경우 학생 계획대로 라면 10학년 중간에 들어가므로 11학년에 가는 것보다는 다소 적응이 쉬울 것 입니다. 다만 나이가 너무 많다면 10학년 지원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학교는 1월 전학을 받지 않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11학년이 우리의 고3이나 마찬가지로 여서 11학년에 유학을 가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텐데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학은 학업 외에도 활동이나 학생의 인간적 측면을 고려하므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사정이나 심증을 잘 모르지만 지금 유학을 꼭 가야 한다면 학업 경쟁이 상대적으로 너무 세지 않은 학교로 가는 게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학업이 센 학교는 입학 자체도 힘들지만 지금 가서 잘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간다 해도 현재 재학 중인 국제 학교에서 머물면서 미국 대학을 가는 것에 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모험을 하는 셈입니다. 입학이 가능하다면 학생이 높은 학년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30위-60위 권 학교가 대학 입학에서 성과를 올리는데 합당할 것 입니다.

이곳에 게재되는 답변 내용은 보스톤유학원에 저작권과 판권이 있습니다. 보스톤유학원 허락 없이는 허가없이 전재,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 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GRAND OPENING

## JEI-Burlington 재능교육

대상: Pre-K 부터 9학년 까지

- Parents ask us if we are like Kumon/구몬
- Yes, but...
  - has a scientific diagnostic system. It pinpoints the missing links in learning, and prescribes an individual study program based on specific needs.
  - provides a comprehensive curriculum. JEI Math, for example, covers not only number operation but geometry, measurement, and more.
- JEI Math** (Pre-K ~ 9학년)
 

점진적인 커리큘럼 통해 수, 연산, 도형, 측정, Relation & Function 등 수학의 모든 영역을 교육
- Problem Solving Math** (2학년 ~ 8학년)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주는 상황수업으로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 배양
- JEI English** (Pre-K ~ 9학년)
 

점진적인 커리큘럼 통해 듣기, 쓰기, 말하기 등 Language Arts의 모든 영역을 교육
- Reading & Writing** (2학년 ~ 9학년)
 

임성된 문학작품들이 독해를 통한 읽고 쓰기, 한자 및 한성문의 사용, 시, 기사, 부속문 등 다양한 문학작품과 인포: 리터처

[www.jeilearning.com/burlington](http://www.jeilearning.com/burlington)  
Visit our website for a complete list of JEI Learn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and Canada.  
원장: 박 창 진  
T. 781-365-0075 Learning Centers

## Diamond International Wholesale

Import | Export  
관련 한국말 상담(무료)

- + 최저 가격 보장
- +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
- + 10 million dollar 이상의 다이아몬드 보유
- + 유일한 한인 wholesaler
- + 미국 유명 연예인 다량구매
- + 세계 최고 권위 GIA 감정서
- + 보스톤 다운타운 줄리리 필딩 내 사무실

### Perfect Christmas Gift!

- #02261 GIA 1.09 ct Round E VS1 \$13,500
- #02262 GIA 1.01 ct Round F VS1 \$10,000
- #02263 EGL 1.25 ct Round F VS1 \$9,000
- #02264 EGL 1.01 ct Round D SI2 \$4,500
- #02265 N/A 1.03 ct Round D SI2 \$3,500

## JIN CHONG 대표 | 정진규

주문 및 예약문의 | 617-921-8999 by appointment only  
Jewelers building | Downtown Boston  
333 Washington St Boston MA 02108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미국 사립 보딩 학교들의 대기자 명단 푸는 방법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대부분의 미국 사립 보딩학교들이 3월1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 결과는 입학(Accept), 대기자(Wait list), 거절(Deny)의 3가지이며 거절된 경우는 절대 그 결과를 반복할수 없기때문에 수긍해야만 한다. 다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경우는 여러 형태로 푸는 방법이 있다. 대기자 명단에서 푸는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대기자 명단에 들지않고 합격자 명단에 들게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해결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명문 보딩 지원자들의 경우 학교 성적은 대부분이 좋기때문에 우수한 성적은 큰 차별화의 요소는 못된다. 때문에 인터뷰 후와 원서 제출후의 지원자의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도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인터뷰후 탱카드만 보내고 더이상 학교와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 둘째, 인터뷰와 원서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어드바이저 또는 카운셀러,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과의 충분한 대화와 흥미있는 학교 선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런 리소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처음부터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면 이를 풀어 입학허가를 받기가 무척 까다

롭다. 처음부터 최고 명문학교만 고려하여 차선의 학교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자 명단을 풀려고 한다면 아주 힘든 경우가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학교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대기자 명단에 놓이게 되더라도 풀기가 쉽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자신이 원하는 첫번째 학교들에서 입학허가를 받지못하고 대기자, 그러나 두번째 선택한 학교들에서는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대부분 학부모들은 첫번째 선택학교들의 대기자 명단을 풀어서 입학허가를 받고자 최선을 다할거라 생각 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풀어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최고 명문 보딩이 첫번째 선택이라면 입학허가된 학생들 대부분이 등록을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차선책의 학교에 입학해서 최선을 다해 명문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된다. 이 경우 지원한 학교들에서 입학거절 또는 대기자 명단에 포함된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없다면 대학 진학준비시 동일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푸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각각의 컨설턴트마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풀어가는 방법은 다를 거라 생각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결책은 학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첫째, 원서 제출후에도 충분한 업데이트 정보를 꾸준히 만든다. 예를 들면 SAT2, 아트 경시, 외국어 경시, 작문 경시, 음악 콘서트, All State Music, 수학 경시 참여등 3월 10일 합격자 발표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꾸준히 만들어 놓는다. 물론 학교내에서 리더십, 봄학기 스포츠 Varsity등의 결과를 업데이트 시켜도 좋다. 둘째, 사전에 지원한 학교와 관심있는 분야의 선생님들과 충분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 졌다고 가정한다면 학교에 이 학교가 첫번째 선택 학교이고 대기자 명단에서 풀리면 반듯이 등록하겠다는 어필 편지를 가능한 빨리 쓰도록 해야한다. 가능하면 3월 10일 저녁에 써서 보내도록 하자. 셋째, 학교 카운셀러 또는 진학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대기자 명단에 포함된 학교에서 입학 허가 되면 반듯이 등록할 거라는 점을 알린다. 그리고 카운셀러나 진학 담당 선생님이 학교와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촉하여 자신을 서포트 해줄 것을 부탁한다. 넷째,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학교 선생님, 컨설턴트, 동문, 현 학부모등)들로 부터 협조를 구한다.

이상의 경우는 가장 일반화된 대기자 명단을 푸는 방법이다. 필자의 경우는 3월 10일 이전에 대부분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기에 공식적 최종 발표 전에 학교측과 충분한 정보 교환을 통해 대기자를 입학허락으로 바

꾸는 작업을 3월 10일 이전에 주로 한다. 그리고 학교가 끝까지 대기자 명단을 고집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교 지원을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새로이 지원한 학교에서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켜 평가를 하며 이 경우가 원래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학생들 보다 입학 확률이 훨씬 높다. 문제는 모든 서류들(학교 서류 포함)이 가능한 빨리 학교에 도착하게 해야한다. 물론 새로이 원서를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가 원서를 받는다. 대기자 입학 결과는 빠르면 3월 20일 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학교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업데이트 정보를 보내주는게 매우 중요하다.

대기자 명단을 푸는 방법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변 지인, 컨설턴트, 동문등이 아닌 학생자신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주변인들의 도움과 학교와 충분히 친분이 있는 컨설턴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기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표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컬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들로서,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전사,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Specialist

## Kwang O Kim / 김광오

Vice President

Direct: 617. 792. 8615



 <p><b>Woburn</b> 단독주택 / \$384,900 방 4, 화 2, 1562 sf. 새로수리된 깨끗한집 하이웨이아 근접</p>	 <p><b>Boston</b> 콘도 / \$425,000 방 1, 화 1, 654 sf. Top quality condo Fenway E.U. Area</p>	 <p><b>Westminster</b> 타운하우스 / \$149,900 방 3, 화 2, 1200 sf. 조용하고 이쁜한 타운하우스</p>	 <p><b>Acton</b> 콘도 / \$605,500 방 3, 화 2.5, 2574 sf. New home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택가</p>
 <p><b>Acton</b> 콘도 / \$788,899 방 4, 화 2.5, 3198 sf. New external paint</p>	 <p><b>Winchester</b> 단독주택 / \$814,900 방 4, 화 2.5, 2550 sf. Spacious open floor plan</p>	 <p><b>Acton</b> 단독주택 / \$570,000 방 5, 화 3.5, 3542 sf. Updated kitchen and bath</p>	 <p><b>Acton</b> 단독주택 / \$490,000 방 4, 화 2.5, 1824 sf. Charming brand new house</p>

**13년의 탄탄한 경력과 노하우로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el 781. 259. 4989  
Fax 781. 259. 495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 4989  
Fax 617. 969. 4959

BostonNewStarRealty.com  
NewStarRealty.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화당의 역사 (3) 1960년대, 공화당은 왜 남부로 눈을 돌렸나?

공화당이 “공화당식 보수주의”를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다시 부활시킬 시대정신으로 마케팅했던 1980년대는 사실 적어도 1960년대에 준비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첫째 근거는 1964년 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 1963년 암살당한 존 F. 케네디의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현직 대통령 린든 B. 존슨 (민주당)에 맞서 아리조나 상원의원 출신으로 극렬한 반공주의자였던 베리 골드워터가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골드워터는 1964년 선거에서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실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대한 사회 (The Great Society)>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New Deal), 그리고 그 후임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의 페어딜 (Fair Deal)의 계보를 잇는 정부 주도 대규모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었다.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각 저소득층과 빈곤층 고령인구를 위한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라든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프리스쿨 교육의 혜택을 입도록 한 헤드스타트,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일 자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는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등 의료, 교육, 일자리, 주택에 걸친 복지 혁명이었다. 이에 대한 골드워터의 입장은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저소득

층의 도덕적 방종을 방기하며 미국인(!)의 자유와 틀 제한하고 자본주의의 본령을 망각한 망국적 포퓰리즘’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어쨌거나 이 선거는 1950년대 중반 처음으로 창간된 보수주의 지식인들의 정기간행물인 <National Review>, 1960년 결성된 보수주의 운동인 <자유를 위한 젊은 미국인 (YAF, Young Americans for Freedom)>,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여러 갈래 보수주의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결집하게 된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골드워터는 보수주의의 아이콘으로 남게 된다. 혹은 공화당내의 가시적인 보수혁명의 시발점 역시 1964년 선거가 된다. 어떤 보수주의자들은 이 선거를 지칭하여 영광스러운 패배 (Glorious Disaster)라 말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중들의 머리속에는 레이건이라는 빅 네임에 비해 존재감이 희박한 골드워터지만, 1980년대 레이건의 선거 캠페인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골드워터의 1964년 선거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였다.

물론, 이 선거에서 적어도 대선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골드워터가 남부 다섯 개 주에서 승리를 얻은 것 외에는 린든 존슨에게 참패했다. 하지만 골드워터는 프레임을 획득했다. 바로 2년 뒤 치러진 중간 선거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

으나 민주당의 참패였다. 존슨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복지국가’에 대한 집중포화에 탄환을 제공한 것은 골드워터였을게다. 훗날 대통령이 되는 레이건 역시 1966년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당선된 골드워터 키즈(!)였다.

1964년 선거에서 골드워터의 캠페인에서 주목할 또다른 요인은 “남부 5개 주를 공화당이 선점”했다는 데에도 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남부는 민주당에 몰표를 주던 텃밭, 이른바 Solid South였다. 그런데 공화당의 확실한 보수화가 진행되던 시발점인 1964년 선거에서 공화당을 선택한 단 다섯 개의 주가 남부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 동부, 북부의 정당이었던 공화당이 남부로 그 외연을 넓혔고, 현재의 남부가 공화당의 텃밭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남부가 공화당의 골드워터를 선택했던 것은 린든 존슨 재임기에 통과한 민권법 (Civil Right Act of 1964), 그리고 1965년의 투표권법 (Voting Right Act)에 대한 남부 (백인들)의 반발이라고 하겠다. 과거, 노예제를 찬성했던 남부 백인들의 정서는 여전히, 공공연히 인종차별적이었고, 민권운동의 흐름과 이를 수용하는 법적 변화에 탐탁치 않았고, 그 잠재된 불만이 표로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물론 민주당의 복잡한 정체성 속에는 골수 남부인의 정서와, 민권

운동을 지지하는 정서, 존슨의 베트남전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전의 입장, 진보와 보수의 정서가 고루 존재했었고, 이를 대하는 인종차별주의적 남부인들의 정서도 복잡다단했을 것이다.

이 복잡한 정서를 제대로 간파한 것은 1968년 닉슨의 “남부 전략”이었다. 남부 백인의 보수적인 정서를 겨냥한 닉슨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압승이었다. 인종차별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남부는 당시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의 영향으로 팽배해있던 진보적 분위기에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을 느꼈다. 또한 상대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세속화된” 기독교의 유연화에대한 반발로서 남부의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도 보수주의의 흐름에 기댔다. 이듬해 닉슨은 자신감있는 어조로 (이러저런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의 흐름과 달리) “침묵하는 다수 (Silent Majority)”는 여전히 보수를 선호한다고 연설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공화당이 보수주의를 프레임화하고, 보수적인 정서가 더욱 강했던 남부를 전략 지역으로 삼았던 것은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음에는 틀림 없다. 그리하여 1960년대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문화전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다음 칼럼에서 계속)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 6년근 명품 홍삼은 114년의 정성이 더해 2013년 최고의 선물이 되다

행사 기간 12월11일(수)~12월31일(화)

고려인삼은 한의학에서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약 또는 장수건강식품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114년 동안 고려삼의 맥을 잇는 정관장 제품은 그 효능과 안정성에서 일반 건강보조 식품과는 차별되는 품질을 지켜나갑니다.



홍삼라떼  
Coming Soon!

6년근 명품 홍삼에 114년의 정성이 더해 2013년 최고의 선물이 되다

타주로 포장 후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 EVENT 1



240g 홍삼정 2개 구입시  
80g 홍삼정 무료 증정



240g 홍삼정 구입시  
30g 홍삼정 무료 증정



120g 홍삼정 구입시  
31.5g 환 무료 증정

### EVENT 2



10% OFF  
홍삼 추출액  
(지삼, 양삼, 절삼)

6년근 홍삼만을 사용하여 뿌리삼의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담아낸 100% 순수홍삼 상품입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H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주문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배송 서비스 안내  
\$100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100 이하 구매시 \$5 배송비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성탄축하예배에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탄전야예배 (Candle Light Service)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30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성탄축하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킷드라마, 바디 워십, 칸타타,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 비전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비전 교회**  
GRACE VISION UMC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양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세바기도회 : 오전 6시 (취요일 제외)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1-6793 • 603-261-6798 • www.newkcc.org

#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임목사: 김 덕 기

★ 청년부 사역자 찾습니다. ★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St. Antoine Daveluy Korean Catholic Church at Corpus Christi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0am(주일학교가 있는주)  
11:30am(교중미사), 4:30pm

원격의선 끝물향터  
원격의선 복사열을 발산하는 화염관 기술  
신기술 난방지체, 전자파가 없는 친환경 침전난방  
원격의선과 올바른이 병을되는 쾌적한 온돌 문화

원격의선  
교회기도실, 유아실, 오피스텔, 마파르, 병원, 요식업소  
등에서전자파는 없고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

**ondolusa**  
www.ondolusa.com  
646.670.1810  
701 hammond st, chestnut hill, MA 02467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89.5809

CHUNG DAHM **ReadWrite**  
the critical reading & writing experts

신규등록 학생에게는  
\$50 Discount가  
적용됩니다

**아이가 책 읽는건 좋아하는데 라이팅과 스피킹이 부족한가요?**  
형제어화살의 다양한 저술하기 프로그램으로 Reading, Writing, Speaking 세가지 모두에 자신감을 끌어 넣어 주세요!

리딩과 라이팅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ReadWrite 수업으로 아이들의 스킬을 길러 주세요!  
2019년 겨울학기는 12월 9일부터 3월14일 까지 (12주 과정)이며 등록은 그후에도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수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b>Expository Analysis</b> Grades 5-12 비소설/설명문 수업	• <b>Literary Analysis</b> Grades 1-9 소설수업
• <b>Issue Analysis</b> Grades 3-9 이슈토론수업	• <b>Writer's Workshop</b> Grades 3-4 라이팅 워크샵 수업

자세한 스케줄은 [www.BostonReadWrite.com](http://www.BostonReadWrit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세요.  
[www.BostonReadWrite.com](http://www.BostonReadWrite.com) | [info@BostonReadWrite.com](mailto:info@BostonReadWrite.com) | 857-404-0170

디지털카메라의 이해와 활용 컬럼 186 Nabis Studio Creative Director 양성대 ozic@hotmail.com

## 느낀 것을 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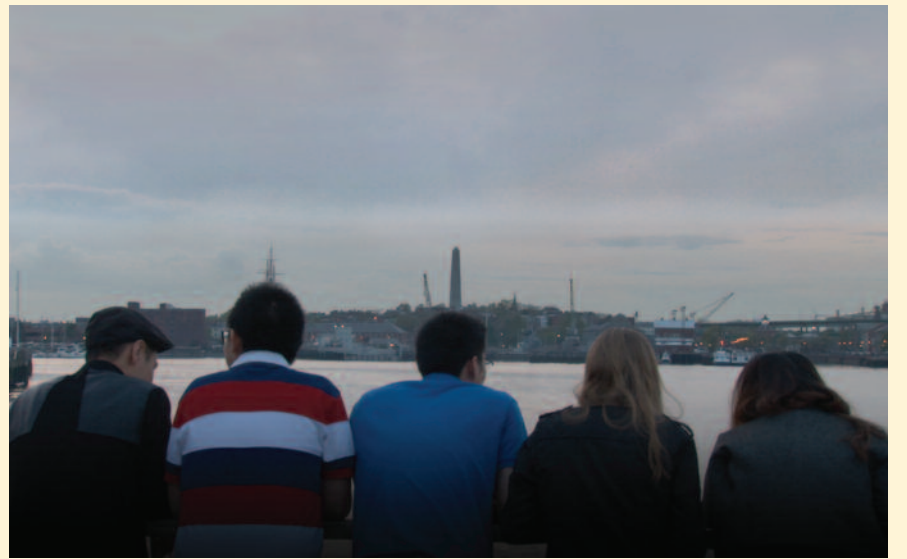
우리가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 사진기술이 느는 것은 사실이다. 똑 같은 구도로 찍어보고, 앵글로 혹은 빛으로 실험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때론 사진은 그 내용을 느끼고 음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보고, 비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가?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 나오는 카메라의 기능과 촬영 기술에 치여, 정작 사진을 감상할 때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모른다. 물론 추상적으로 '그냥 보고 느끼면 된다' 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감상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도 나름의 생각을 부여하여 촬영하게 된다. 요번 컬럼에선 사진 감상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란 결국 사회 생활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찍은 사진이야말로 사진 중의 사진이다. 왜냐하면 사진은 기록성이 큰 것이 특징인데, 기록이란 결국 사람들의 생활 기록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진이 이들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소위 명작·결작으로 알려진 사진 대부분이 인간 생활을 찍은 사진들이다. 생활이란 알다시피 단순한 일상생활도 있지만, 전쟁·기아·질병 등등 인

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온갖 중요한 이슈(issue)들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관심 내지는 적극적 참여의 표시인 것이다. 따라서 사진의 구도나 찾는 것이 올바른 사진 감상이 아님을 이해하고,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자.

사람들은 사진을 그냥 편하게 감상하다가도, 사진을 작품으로 감상하려 하면 엉뚱한 데로 빠지곤 한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기껏 구도나 알가알부하다가 마무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술 작품'이라니까 무언가 아름다운 어떤 것이 들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찾다 보니 구도나 색채 따위에 사로잡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사진이나 예술은 다양성이 있으므로, 굳이 정답은 없다. 그러나 사진을 감상할 때, 보다 중요한 본질을 찾지 못하면 실력은 항상 제자리다. 오래 찍으면 조금의 테크닉 정도가 늘 뿐이다.

사진은 어떻게 감상할 것이가? '사진은 이야기로 보자'. 작가는 사진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슬픈이야기도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말' 이나 '메시지' 로 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래야 사진을 찍을 때에는 물론, 볼 때에도 제대로 보인다. 사진이 이야기이라면, 아름다운



Photograph by Soungdae Yang

이야기만이 들을 만한 말이 아님은 금방 이해될 것이다. 시를 보자면 미사여구만으로 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미사여구는 시가 피해야 할 가장 통속적이고 천박한 걸모양이 아닐까. 사진 역시 그렇다. 내용이 없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사진은 싸구려 달력용일 수는 있어도, 두고두고 볼 만한 사진은 될 수가 없다.

사진을 감상할 때에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찾지 말고, 내면적인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사진은 작가의 '이야기' 이다. 다시 말해 인생과 자연에 대한 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놓은 것이 '작품'의 본질이다. 이는 어느 예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진을 볼 때 그가 사진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사진 감상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진들을 직접 찍고 전시를 하고 남의 사진을 구경하면서 사진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쏟아 내면서도(표면적 이야기) 정작 그 사진이 주는 의미 혹은 메시지(내용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작품이 던져주는 의미 혹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작가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에서 '문화재의 미적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말했다. 그림이든 사진이든 전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사진을 감상할 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지 말고, 이야기도 듣자. 귀를 기울여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사진은 보는 것을 찍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을 찍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느끼는 것을 사진으로 담아보자.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즈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형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 신영의 세상 스케치

427 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선부른 인연 쉬이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한국은 낮시간 산을 좋아하는 언니에게 안 부도 물을 곁 밤 11시가 다 되어 카톡으로 눈이 내린 보스톤의 밤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보낸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스톤)는 새벽 1시 22분.

"함부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TV를 보며 와인 한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정도가 되어 남편이 대문을 막 들어서는데 우리 집 강아지 '티노' 녀석이 출렁거리며 열린 문 사이로 화들짝 달려나가고 말았지 뭐냐. 이 녀석이 끈을 묶을 시간도 없이 남편이 들어오는 사이 그 틈을 타 밖으로 달려나갔다.

오늘 밤처럼 이 녀석의 갑작스런 몇 번의 돌발 행동은 그저 따뜻한 계절이었기에 큰 걱정 없이 기다리다 돌아오는 정도였다.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30분 정도 동네 어딘가를 돌다가 돌아오는데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날씨는 쌀쌀하고 눈이 쌓인 밤 길이라 여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밤 12시, 자정이 넘은 시간 남편은 살금살금 동네 여기저기를 찾으러 다니고 나는 집 현관문에서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아도 보이

지 않으니 점점 걱정은 커지고 있었다. 그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추운 날씨에 눈까지 쌓인 까닭이다.

남편이 할 수 없이 자동차를 끌고 밖을 돌아보고 온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 남편은 자동차를 끌고 나가고 나는 집에서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동네를 한 20분 돌고 오더니 터덜터덜 혼자서 그냥 오는 게 아닌가. 남편을 바라보다가 아니 되겠다 싶어 셀폰(손전화)을 챙기고 후레쉬 라잇 하나 챙겨 들고 남편더러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다시 자동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시간 천천히 운전하며 동네의 반경을 넓혀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40분을 동네의 여기저기 골목마다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돌아보며 돌아도 이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녀석이 이제는 추운 밤 얼어서 죽겠구나!"

싫은 마음에 눈물이 눈 안 가득 차올라 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티노(강아지)' 녀석이 지금 집에 왔노라고..."

1시간 30분을 깜깜한 밤 눈 쌓인 추운 곳 밖에서 헤매다가 그래도 집을 잘 찾아왔다는 그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다. 집에 도착하여 급하게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이 녀석은 미안한지 아니면 야단맞을까 걱정스러운지 꼬리를 내린 채 나를 바라만 보고 있다.

이 늦은 밤 시간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함부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정말, 선불리 인연은 쉬이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에 귀한 새김질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강아지에게도 정이 들면 이토록 가슴 아픈데 내게 귀한 인연으로 남은 소중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깊은 가슴 아픈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니

"선부른 인연 쉬이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깊은 생각에 머물러 본다.

이 녀석은 이 엄마의 마음을 알거나 하는지 휘둘리 룸 소파에 자리한 제자리에 누웠길래 이불을 덮어주니 곧히 잠들어 쉬고 있다. 깜깜한 밤 추운 날씨에 홀로 눈발에서 헤매다 꽤

피곤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고 몇 번을 되뇌고 말았다. 이 녀석을 여기저기 정신없이 찾으며 가슴 졸이던 그 1시간 30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시간이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새삼 이 녀석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늘 곁에서 졸랑졸랑 따라다니며 재롱을 떨고 꼬리를 흔들며 언제나 반겨주는 녀석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생각하게 한다.

이 녀석이 만 10년이 되었다. 그러니 강아지(개) 나이로는 70세가 된 셈이다. 우리 집에 3살 때 왔으니 7년을 함께 살았다. 우리 집 막내 녀석이 강아지를 좋아해 망설이고 망설이다 찾아 인연이 되어 만난 녀석이다. 한참 사춘기(하이스쿨 때)로 정서가 불안한 시기에 강아지를 돌보며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고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만남은 언제나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헤어짐이 있다. 서로에게 귀하고 소중하게 남은 인연은 헤어짐에 있어 더욱 가슴 아픈 일인 까닭에 선부른 인연 쉬이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깊은 생각에 머물러 본다.

2014년 새해 맞이 건강 프로젝트

宣 癒 堂

일반 보약 \$250

녹용 보약 \$380

한약의 탁월한 효능과 신선함을 위해 선유당에서는 직접 한약을 다려 드립니다.

한의원 선유당

1208B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Tel 617.327.1812 www.sunudang.com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proud carrier of

WIDEX SIEMENS EarQ Westone  
oticon Starkey ReSound PHONAK

ASSISTIVE LISTENING DEVICES  
Now Available • Call for Details

TV EARS Listening System, Vibrating Alarm Clock, Vibrating Watches, Amplified Phones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MOON HEARING SERVICES  
www.moonhearing.com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전쟁과 규장각 도서의 수난

### 장서각의 이조실록은 평양으로 갔다-4

(지난호에 이어서)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이조실록을 북한에서 탈취해간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의 직접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탈취의 방법과 수송절차도 김일성이 직접 명령하고 지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조실록의 탈취와 그 수송절차는 엄숙하고도 철두철미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천리마의 1977년 7월호에 <위험속에서 구출된 리조실록>이라는 이조실록탈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엄숙한 시기에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인 <리조실록>을 구출할 임무를 주시었다. 파견장을 가슴에 안고 나선 일꾼들은 몇일사이에 서울에 당도하였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리조실록은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었다. 우리는 귀중한 문화재인 리조실록 한책 한책을 자동차에 정성답게 실었다. 승리의 진격을 다그치는 그 역사



적 시각에 리조실록을 실은 차는 북으로 북으로 평양을 향해 달렸다. “라고 그때의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장서각의 이조실록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디서 차에 실었으며 또 수송노정에 대한 언급도 없다.

연세대학교 민영규 교수가 6.25전쟁이 있는 어느 여름날 북아현동에 나갔다가 인부들이 큰 책을 지게에 짊어지고 애기능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

았다고 한 그시기가 바로 북한에서 실록을 탈취하여 평양으로 가져가던 때 일 것이다.

그들은 상황이 급하였던지 책을 제대로 포장도 하지 못하고 또 미군의 폭격이 두려워서 차에다 싣고 영천 쪽의 국도로 가지못하고 인부를 동원하여 날책을 지게에 지고 서대문을 빠져나와 애기능 쪽으로 와서 연대의 뒷산을 넘어 일산이나 능곡의 어느 지점

에서 차에 받아 싣고 평양으로 갔던 것 같다.

김일성은 서울 파견원들이 이조실록을 싣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하면서 이제 리조실록이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보관을 잘해야하겠다고 하면서 “안전한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최고사령부에 보관케 하시오”라고 지시, 리조실록은 최고사령부에 보관되었다”는 것이다 (인민들 속에서

15 노동당출판 1977년 7월호 참조). 북한에서 장서각의 이조실록을 탈취하여 평양으로 가져간 것은 1950년 7월 초였다. 서울은 이미 북한군에게 점령되어 사회주의정치가 실시되고 있어 북한공산군은 승승장구로 대전을 공략하고 낙동강 편으로 진출하여 격전을 벌일 때였다. 그들의 말대로 최후의 승리를 위해 진격을 다그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승패를 가늠하는 엄숙하고도 급격한 이 시기에 김일성은 왜 이조실록부터 빼앗아 가려고 했는지 의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조실록은 조선조의 역대왕의 치적을 기록한 문헌이다.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보장하는 신성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김일성은 말하기를 이조실록은 “민족의 재보이며 귀중한 민족문화재인 리조실록을 미군에 빼앗길까봐 우리공산주의자들이 구출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민족의 재보인 문화재가 어디 이조실록뿐이겠는가? 그보다도 더 귀중한 재보는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3국 및 고려시대의 유물과 구황실이 남겨놓은 어보들이 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재보일 것이다.

하기야 왕권의 계승은 어보(옥새) 이상의 것은 없겠다. 그러나 왕정이 몰락한 현실에 있어서 옥새는 실효가 없는 역사적인 유물이 되고 말았다.

(다음호에 계속)

### BOSTON & WORCESTER CAMPUSES

## 영어를 배우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세요!

### 기초영어부터 이드벤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 1** J-1, B1/B2 비자를 F-1으로 신분 변경
- 2** 다른 학교로 전학 용이
- 3**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 영어 프로그램

기초반 에서 고급반 까지 다양한 레벨 제공. 공식 여름방학

- 집중 영어 프로그램: \$3,300/year
-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3,900/year

####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문기술을 배우는동안 F1 학생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합니다.

- Customer Service: \$4,500/year
- Hospitality Industry: \$4,500/year
- Admisitrative Assistant: \$4,500/year

CSIE is accredited by Nort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NCA CASI) and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CSIE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is issued to those who qualify.



**NAMU**  
 꿈을 키우는 부동산  
 NaMuRealEstate.com

2001 Beacon Street, Ste. 101  
 Boston, MA 02135  
 info@NaMuRealEstate.com  
**617.858.NAMU (6268)**

Commercial · Rental · Purchase · Sale · Residential · Rental · Purchase · Sale

NAMU REAL ESTATE은 모기지(mortgage)와 부동산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고객님들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와 렌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와 금융관련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골치 아픈 부동산 매매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고객님의 부동산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 Real Estate이 되겠습니다.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택 구매용자, 재융자,  
 부채통합 용자  
 Conventional Loan / FHA Loan  
 / Portfolio Loan  
 상업 구매용자,  
 재융자  
 Conventional Loan  
 / SBA Loan

**류 영욱**  
 Young Uk Lew  
 NMLS#164694

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



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 commercial loans

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



스타  
타이트 엔드  
그롱코스키  
시즌 아웃

무릎 부상으로 카트에 실려 나가는 패트리어츠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극적인 4쿼터 역전승을 일궈내며 3주 연속으로 10점차 이상 경기를 뒤집는 괴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승리의 기쁨보다도 플레이오프를 비롯한 향

후 일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가 시즌을 마감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3쿼터에 상대편 수비수에게 태클을 당한 후 쓰러진 그롱코스키는 카트에 실

려 나간 후 경기에 복귀하지 못했다. 경기 후 빌 벨리치 감독은 “담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부상에 대해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 현재 내가 아는 전부다” 라고 말했다. 9일 오전부터 NFL 소식통들은 앞다투어 그롱코스키의 부상에 대해 보

도하기 시작했다. 2번이나 프로볼에 선정되며 리그 최고 타이트 엔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롱코스키는 오른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찢기고 내측 인대에 손상을 입었으며 뇌진탕 증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롱코스키는 부상을 당한 오른쪽 무릎의 치료 및 재활 훈련을 위해 올해 남은 경기의 결장이 불가피하고 내년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부상이 완치될지도 의문이다. 그롱코스키는 올해 시즌이 시작할 때도 팔과 등 부상 등으로 인해 시즌 첫 6경기를 뛰지 못했다.

그롱코스키는 최근 7경기에서 39번의 패스를 받아 592야드를 전진하고 4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개인 기록도 뛰어났지만, 그롱코스키의 존재감은 패트리어츠의 공격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롱코스키는 타이트 엔드로 상대편 수비수에 대한 블로킹 능력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그롱코스키에 대한 패스 수비가 강화되면 그만큼 다른 리시버들에게 공격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지난 시즌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그롱코스키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쿼터백 탐 브래디와 패트피어

츠 팀 역시 고전했다. 그롱코스키가 뛰지 않은 첫 6경기 동안 브래디는 1,480야드와 8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패트피어츠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20.8에 불과했다.

그롱코스키가 경기에 출전한 7경기에서 브래디는 2,205야드, 1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도 56.9%에서 64.1%로 상승했다. 팀 득점 역시 경기당 평균 32점으로 높아졌다. 브래디는 “어떤 선수라도 경기 중 부상을 당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롱코스키를 포함해 올해 우리는 중요한 여러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었다. 그러나 아무도 패트피어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고 말했다.

시즌 초반 그롱코스키가 없을 때도 패트피어츠는 5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패트피어츠의 약한 공격력을 강력한 수비로 상쇄하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지금은 그롱코스키 외에도 빈스 윌포크, 재라드 메이요, 타미 켈리 등 수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시즌이 종료로 향할수록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해지고 있다. 그롱코스키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경기들은 패트피어츠에게 플레이오프 성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  
세조와 수박도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세조대에 보면, 수박도(手搏道)는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 준비에도 많이 훈련되었다. 세조실록(세조3년, 1457년)에 나오는 의금부의 보고에 의하면 “중 해명惠明이 중 의전義田을 고발하기를, <의전이 송경宋經등 89인의 이름을 기록한 글을 가지고 와서 보였으며, 또 말하기를, [장차 다시 ‘민신閔伸의 난亂’ 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가뭄이 심하여 상왕上王를 세우려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한량崔旱兩, 의전義田등이 말하기를, [가뭄이 심한데, 상왕이 왕위에 오르면 벼농사가 무성하게 되리라.]고 하였으며, 또 담양潭陽 향리鄕吏와 관노官奴 등은 [나라에서 수박手搏으로써 시제試才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서 수박手搏戲를 하면서 몰래 용사勇士들을 뽑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하략 …”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상기한 특정 사건이 직접적으로 단종을 복위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세조가 상왕인 단종을 죽이기 전까지 단종 복위운동은 수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육신 사건과 세조의 동복 동생인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

보흠과 같이 한 복위사건이다. 위의 ‘민신의 난’ 은 계유정란을 말하며, 이 ‘계유정란’ 은 1452년 단종 즉위년에 권람과 한명회 등의 계략으로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민신 등 소위 ‘살생부’ 에 적힌 그들의 일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민신은 당시 이조판서였으며 정난이 일어난 10월10일에는 문종의 능인 현릉에 있었다. 거기서 비석 제작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정난군에 의해 문종의 능에서 참살당하였다. 당시는 계유정란을 ‘민신의 난’ 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모든 정적을 제거한 수양은 조정의 실권을 한손에 다 잡았다. 그 후 단종을 밀어내고 옥좌를 차지하였고, 상왕이 된 단종부부는 목숨이 위태로운 불안한 날들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사육신의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 가면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정령포)로 유배를 갔다. 그 후 금성대군이 주도하는 복위운동이 관노의 밀고로 실패로 돌아 가면서 단종은 어린나이에 사약을 받고 1457년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이 당시 한양에서 영월까지 단종을 호송했고 또 사약을

들고 간 금부도사가 왕방연이었다. 종5품의 벼슬로 왕의 특명에 의하여 감당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한 그는 돌아가는 길에 청령포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그의 비통한 마음을 시(詩)로24) 승화하였다.

또한 수박도는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고 인견하는 모화관慕華館 행사에서도 자주 열렸다. 세조실록(1459년, 세조5년)에 보면 “모화관에 거동하니, 왕세자 및 종친 그리고 재추宰樞가 어가를 수행하였다. 임금이 종친, 재추, 검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로 하여금 사후射候하도록 했는데, 신종정新宗正과 이효백李孝伯 그리고 최적崔適이 활을 잘 쏘았으므로 각기 1계급을 승진시켰다. 갑을창甲乙槍, 방포放砲, 사모구射毛毬, 수박희를 구경하였다. 야인野人 유상동합柳尙冬哈 등 3인을 인견하고 의복 및 안장을 갖춘 말, 도자刀子, 궁시弓矢를 내려주고, … 하략 …” 이라고 기록 되어있다. 즉 여진족 사신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종친과 고위관리를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모두 활을 쏘게하여 잘한 사람들에게 승진을 시켜 주었으며 여러가지 군사

훈련을 관람한 가운데 수박희도 있었다. 화포가 꽤 많이 발달 되었지만 여전히 병사들의 훈련에 무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또한 사찰에서 승려들이 수박희를 많이 수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나온다. 세조10년(1464년 - 세조실록 33권)에 일어난 승려들의 살인사건을 보면 수박희를 수련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다. “충청도 진천현 굴암사의 중 성경이 관에 고하기를, <중 처의, 요여가 상해와 더불어 수박희 놀이를 하다가 인하여 도끼, 낫으로 상해를 죽였는데, 현감 남척이 그 정적情跡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니하고, 처의, 요여의 공사供辭에 의하여 살인으로 단정하였습니다> 라고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조의 명에 의하면 현감과 관찰사 모두 옳지 못하니 성군주부成均注簿 정옥경鄭沃翹에게 빨리가서 국문을 다시 하도록 하는 기록이 있다. 그 외 수박手搏의 기록은 정조대 까지 무려 33회나 각 왕대마다 등장한다. 정사만 보아도 많이 소실된 고려시대에 비해 엄청난 분량의 기록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예문으로 인용하려면 너무나 방대하기에 여기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때의 승병들의 활약상과 백성들이 그간 수련한 무술이 양난의 전투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2) 천만리 머나먼 길에 千里遠道 / 고운님 여의움고 美人離別秋 / 내 마음 돌 데 없어 此心無所着 / 냇가에 앉았으니 下馬臨川流 / 저 물도 내안 갈 아야 川流亦如我 / 울어 밤길 예눗다 嗚咽去不休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자식이 아프거나 허약할 때  
미국 어머니들이 치킨 수프를 끓여주시듯,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좋은 설렁탕 (Beef Soup)을 만들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도가니탕  
수육 족발 보쌈  
삼겹살구이 돼지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

# Topkins & Bevans Attorney at Law

With offices conveniently located in Waltham  
Braintree and Boston: [www.topkinsandbevans.com](http://www.topkinsandbevans.com)



코포 2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 필요를 도와드립니다.  
한국말도 제법해요, 전화주세요!

- 개인 주택,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 임대 부동산
- 존도
- 소유주 세입자 관계
- 유언장
- 법인세
- 유증 책임
- 사업체
- 위임권

**Office located at**

255 Bear Hill Road, Waltham, MA 02451  
Phone: 781-890-6230

150 Grossman Drive, Braintree, MA 02184  
Phone: 781-849-5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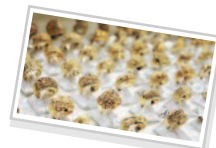
10 Newbury Street, Boston, MA 02116  
Phone: 617-236-0104

**857-288-8617**

# Global Realty P.M.

Jimmy Bok | 860-966-9364

**For Sale**



**Nail \$ Spa** Business & Building  
1,500 S.F. Business  
1,500 S.F. 5 Rooms Apt.  
C.T.(Connecticut) East Lyme  
**\$ 525,000**

**New Building Sale**  
1,500+ S.F. Nail Or other  
C.T.(Connecticut) East Hampton  
**\$ 450,000**

**Jewelry Store**  
Buyers & Sellers (Gold & Diamonds)  
C.T.(Connecticut) Crystal Mall  
**\$ 199,000**

본사는 구입부터 용자, 변호사선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상가, 세탁소 등 5만부터 50ML 까지 보유하고  
E-2 투자 적극 도와드립니다.  
극비에 비밀보장하며, 변호사가(본사) 신속정확하게 도와드리며,  
본사가 지불합니다.

625 Center St. Manchester, CT 06040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jok Jonggaksi Service, LLC

- 공항 픽업/탑승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름뎃 물)

**617.461.9270**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9. No.49 December 13 2013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 “내가 나에게 주는 올 연말 특별한 선물”

### 도브 네일 살롱 Dove Nails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챙기느라 바쁜 때, 여성들은 올해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해보는 특별함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벨몬트에 위치한 도브 네일 살롱(Dove Nails, 대표 이성숙)이 시즌에 맞춰 내놓은 ‘팩키지 패디큐어 스파’ 상품은 한인 여성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선물이라 더욱 권하고 싶다.

발부터 종아리까지 마사지와 팩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발톱과 뒤꿈치의 각질을 제거한 후 아름다운 칼라를 입혀 단장시켜 주는 코스다.

사용되는 제품은 과일, 녹차, 유기농 성분 등 다양하고, 핫스톤 마사지와 핫팩 등도 포함된다.

편안한 패디큐어 스파 의자에 앉아 섬세하고 친절할 네일 테크니션의 서비스를 받다보면 절로 눈이 감길 정도로 시원하고 편안할 터. 발관리 전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라면

, 듣기만 해도 피로가 가시는 듯, 아이템별로 4회 서비스를 한데 묶어 15%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도브 네일 살롱이 새 주인을 맞은 지는 이제 일년됐다. 그동안 고객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로 신규, 단골 고객이 꾸준히 증가해 온 곳이다.

“고객의 특성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밝힌 도브 네일 살롱의 이성숙 대표는 “고객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친절함을 서비스의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며 “이러한 덕분에 고객들이 ‘매장 분위기가 좋다’ 고 다시 찾곤 한다”고 말했다.

한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도브 네일 살롱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쉘락 젤제품(Shellac Nails)이다.

“손톱과 발톱 손상이 적고, 지속력이 뛰어난 게 젤 제품의 특징” 이라고 말한 이 대표는 “색상 또한 고급

스럽다” 고 말했다.

직원들의 화기애애함이 살롱을 밝혀주는 곳

편안함을 추구하는 도브 네일 살롱의 장점 중 하나는 직원간 유대감이다. 이 대표를 포함해 5명의 한인 네일 테크니션들이 일하고 있는 이곳은 직원 간 가족같은 화기애애함이 살롱 안을 밝혀 준다.

주로 40대 주부들로 이루어진 이 팀의 넉넉한 에너지가 살롱을 편안한 분위기로 이끄는 것 같다는 이 대표는 “이민 사회에서 매일 만나 정겹게 인사 나누고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직장이며,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늘게 돼 여성들의 전문직으로서의 뒤떨어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에 더해 근무시간 또한 자신의 스케줄이 맞춰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친절을 최우선으로 한 맞춤형 고객

업소탐방 223

### Dove Nails

258 Blanchard Rd., #5 Belmont, MA 02478  
617-484-1713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그에 더해 이 대표의 경영 마인드는 도브 네일 살롱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 대표는 “비즈니스라 이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선교 등 사회환원을 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hckim@bostonkorea.com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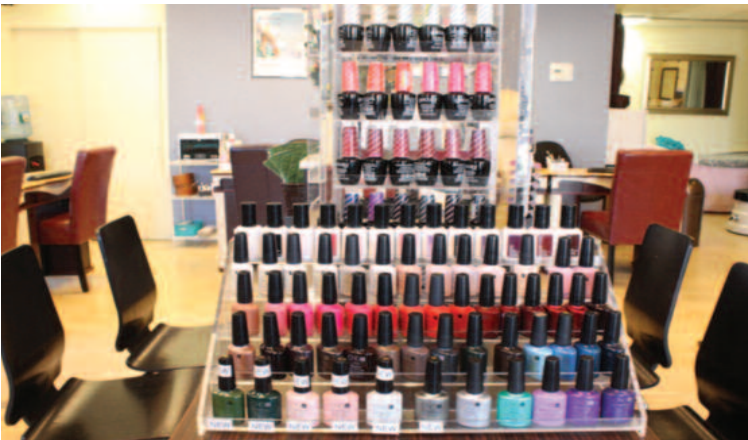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자 합시다!

주일예배 오후 12:30 일일목사 최병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st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6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650 Beacon St(Suite #205)  
Boston, MA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BSW 뷰티서플라이, 어시스트매니저  
Full time / 알바니, 뉴욕 / H 스폰서 가능  
518-727-6202

세탁소 카운터 구함  
벨몬트  
617-309-6140

Milford 한인교회  
전도사, 피아노반주자 구함  
508-634-8710 / 714-356-7888

케임브리지 일식당  
풀, 파트타임 웨이추레스 웨이터  
Jason 617-642-5670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드랍 앤 렌드리 매매  
저렴한 렌트, 넓은 주차장  
978-761-0897

우번, 방렌트 \$500  
침대, 유틸리티포함  
781-910-443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2인용 돌침대팝니다. 전기돌침대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수있습니다. 판매가격 \$300 978-866-3163

**N 런드리,알터레이션,세탁소 매매**  
개인사정으로 인한 급매,꼭필요한사람만 연락, 면적 2,800 sf,월렌트비 \$1,200  
404-245-9885

**N 플로리다 맛사지 Shop 매매**  
저렴한렌트,단골.관광객 많음  
5년이상 무사고  
매매가 \$40,000, 관심 있으신분만 전화  
727-595-1234

**N 애틀랜타 조지아지역 구인**  
나이: 20대 중반~40까지  
숙소: 무료제공  
비행기티켓 (4달이상 일할시 무료제공)  
11월 26일 그랜드오픈예정  
좋은사람들과 가족같이 일하실분 전화  
주세요  
678-687-8831  
678-431-6226

**N 시애틀 스파**  
바디 스크럽사 구합니다.  
오랫동안 가족처럼 일 하실분  
여자분 환영. 자리 제공합니다.  
206-714-1601

**N 맛사지 학교**  
워싱턴주 문교부 허가  
2525 n grand ave  
santa ana ca 92705  
714-469-3232

**N 금!금!**  
최고의 가격으로 10K,14,18,22,24K  
금샵니다  
360-473-3695

**N 상황버섯**  
알래스카 자연산  
암,당뇨,혈압특효  
907-230-8966

**N 슈리페어 매매**  
케리 노스캐롤라이나(N,C)  
24년 동안 운영한 가게임  
건강상의 이유로 매매코져 함  
가격 \$30,000  
연락처 919-469-4575

**N 맛사지 학교**  
워싱턴주 문교부 허가  
2525 n grand ave  
santa ana ca 92705  
714-469-3232

**N 친정맘**  
워싱턴 유일의 출산 관리 전문 회사  
한국 친정맘 대표가 직접 운영  
타주 파견 가능  
Mom1004.com  
253-358-0937

**N 금샵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10K,14,18,22,24K  
금샵니다  
360-473-3695

**N 현금 즉시 필요한분  
특별융자플랜**  
플랜 1: 사용중 크레딧카드 카드회사를  
통해 재융자 가능(즉시 현금)  
플랜 2: 6개월 이상 사용하신 채킹어카  
운트 은행을(미국은행)통해 현금대출  
※크레딧700점이상인 분 사업,개인용  
자 15만불까지 잘 나오고 있음  
소셜번호 없으신분 특별 플랜있음  
모든 플랜은 합법적이며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정직과 신용으로 진행합니다.  
SELA용자그룹 대표전화  
855-410-1822 (시애틀 오피스)  
213-604-4000 (LA)  
646-634-1685 (뉴욕)  
855-410-1822 (덴버, 달라스,조지아)

**N 한국마켓(미시시피)**  
사정상 좋은 가격에  
급매 합니다  
꼭 사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512-775-6429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  
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Boston Tax International, Inc.**  
www.bostontaxint.com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Daze Lee (데이즈 리)**  
공인회계사 / 공인관리회계사

Boston Tax International, Inc.  
대표회계사

**주요 담당업무:**

- 각종 조세 신고 및 난부
- Payroll Service (Pay stub 관리 서비스)
- Workers Compensation 관련 자문
- 불법 체류자 조세 자문 및 사업 관련 자문
- 이중 국적 납세자의 조세 관련 자문
- 해외 송금 및 해외 금융재산 신고 관련 자문
- 유산, 상속 증여세 관련 자문
- 자녀 학자금 신청 관련 자문
- 워킹홀리데이 (WV) 혹은 주정부 과다 조세  
재무 관련 자문
- 개인 및 사업 세세 상담
- 텍스 아이디 신청 및 시인신고, 폐쇄 신고
- 사업 관련 구상과 관련된 재무 설계 상담
- 사인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토지 및 주택 구입시 내용 검토 및 자문

Providence College 경영내과원 MBA (석사)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현) Dunker 111 Community College 학계, 재무과 교수  
(현)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겸임교수  
(현) Massachusetts Bay Community College 겸임교수  
(현) Bay State College 겸임교수  
(현) Santa's Magic, Inc. 감사위원  
(현) American Institute of CPAs 회원  
(현) Massachusetts Society of CPAs 회원  
(현)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회원  
(현)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s 회원  
(현) Korean American CPA Association in Greater New York 회원

상담 전화 **(508) 250-6954**  
P.O. Box 86, Randolph, MA 02368  
Fax) 781-885-7758 / dazeleecpa@gmail.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792-6876이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벨퍼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회발전기금추진위원회	978-407-7554
국회발전기금추진위원회(내)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정책위원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정책위원회	978-902-8305
NE교육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781-480-4778
재미과학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고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고등학교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연세대학교 동문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508-455-1490

###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	401-351-2347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로드아일랜드중앙교회	
RA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턴산인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617-331-1011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781-67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머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65
엘머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홍은명교회	978-930-6613
지구촌장로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401-821-2311	
978-806-1363	
617-223-1690	
207-774-1617	
617-953-0856	
617-864-5948	
617-459-6479	
781-393-0004	
978-869-2596	
978-844-2404	
617-997-6165	
617-947-6765	
978-777-1800	
978-578-6987	
781-894-3958	
781-275-8233	
781-396-1004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핑클럽	617-331-1011
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타케이 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퍼셔뷰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턴사업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오상익	617-632-1070
허버드(브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숙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주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해운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먼실(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먼실(김미경)부동산	603-845-2138

### 사진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전치피시	781-862-7984
보스턴피시	617-282-2980
브룩린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	617-208-8540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시	508-587-3920
다이아나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3년 12월 2일 ~ 12월 8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왕가네 식구들  
34.2%



2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노래를타고 25%



3위 SBS 드라마스페셜 상속자들 22.7%

- 4 MBC 일일연속극 오로라공주 19.3%
- 5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 18.4%
- 6 KBS1 KBS 9시 뉴스 17.9%
- 7 KBS2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6.9%
- 8 KBS2 개그콘서트 16.8%
- 9 MBC 주말특별기획 황금무지개 14.3%
- 10 KBS2 TV소설 은희 13.7%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엔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 01 이별남녀 서인국, 지아
- 02 그리워해요 2NE1
- 03 너 밖에 몰라 효린(씨스타)
- 04 너에게 성시경
- 05 Special Love 휘성, 거미
- 06 코끝에 겨울 어반 자카파
- 07 편지 다비치
- 08 이별식탁 San E
- 09 행복한 나를 김예림(투개월)
- 10 Hush 미쓰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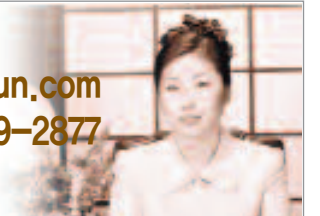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 정답은 12면에

	7	9			5	3	8	
6	8	5		9	3	1		7
4	3	2		8		6		
3		7		4			6	9
8	2		1	6	9		7	3
5	9			7		2		1
		8		3	4	9	1	6
9		1	8	5		4	3	2
	4	3	9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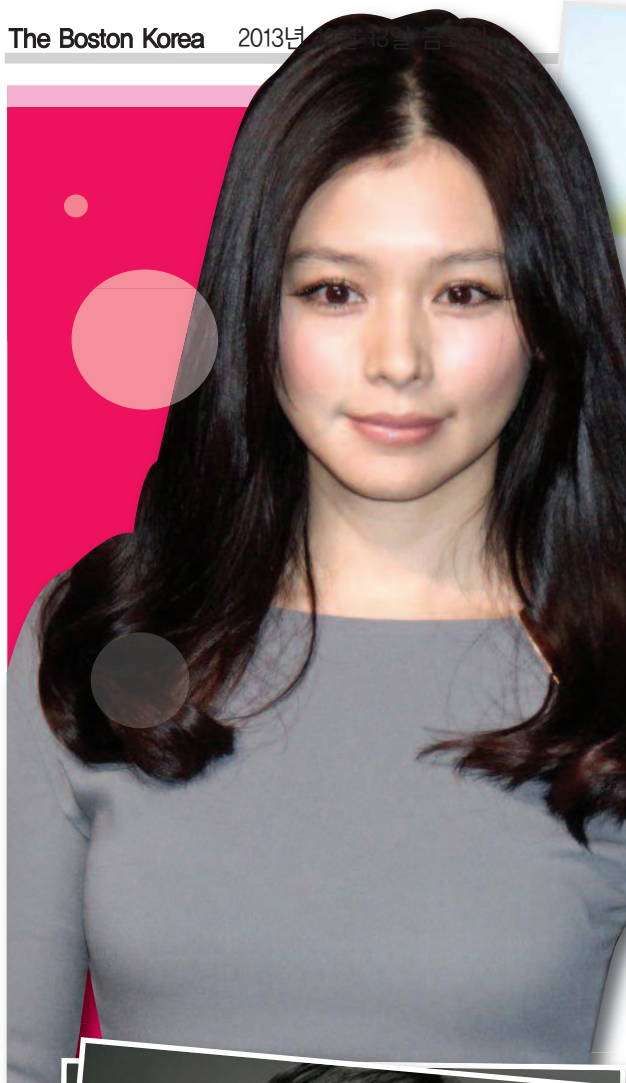
12월 15일 ~ 12월 2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매력적인 끌림을 주게 되는</b></p> <p>● 운수: 그 동안 추진하던 일의 방향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자세로 나가면 순조로울 것입니다. ● 금전: 상대에게 솔직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합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거래관계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애정: 이성에게 매력적인 끌림을 주게 되는 시기이므로 자신을 가지고 만나보세요. 84, 72, 60, 48, 36, 24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소띠   상승기류를 타고</b></p> <p>● 운수: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아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운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프러포즈를 받게 됩니다. 멋진 이벤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범띠   활기찬 생활을</b></p> <p>● 운수: 주어진 환경과 형편이 나이지고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로 활동하는 것이 발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분주하게 뛰는 만큼 소득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적극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니 감정전달이 잘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토끼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는 법</b></p> <p>● 운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해야만 화를 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신경을 쓰거나 나서면 구설수가 따릅니다. ● 금전: 친한 친척지간이라도 금전관계나 동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자신만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태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는 법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5,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용띠   희망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b></p> <p>● 운수: 아무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작은 판매는 쉽게 이루어지고 투자판계도 호조를 띠게 됩니다.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앞날에 즐거움이 기대되는 주입니다. ● 애정: 뜻이 잘 맞는 상대를 만나서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5,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뱀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b></p> <p>● 운수: 다시 안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어느 곳에서 도움을 청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세요. ● 금전: 전반경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았던 좌절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 애정: 바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있군요. 조금만 상대에게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보이면 쉽게 해결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1일 길일. 16, 20일 주의</p>
<p><b>말띠   확실하게 해두어야</b></p> <p>● 운수: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즉시 해결해야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덮어두면 일이 더 꼬이게 됩니다. ● 금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두어 할 것입니다. ● 애정: 한 눈을 팔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의 쓸데없는 충고나 부질없는 비판 같은 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7, 19일 길일. 15, 21일 주의</p>	<p><b>양띠   한 우물을 파도록</b></p> <p>● 운수: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의 유혹이나 마음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세요. ● 금전: 생활비 외의 지출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주입니다. ● 애정: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고 감정만 상하게 합니다. 지난 일들은 덮어두는 것이 약이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5, 18일 길일. 16일 주의</p>	<p><b>원숭이띠   협력자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고</b></p> <p>● 운수: 협력자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고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은 안정되고 급박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한숨 돌리게 되나 대인관계로 인한 교제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현재 이루어지는 혼담은 아주 좋으니 초혼이든 재혼이든 적극 추진해 보세요. 단,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7일 주의</p>
<p><b>닭띠   큰 위안이 되고 두고두고 기억되는</b></p> <p>● 운수: 사업가는 동업자와의 관계에서나 거래처에서 구설수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 금전: 은행 융자 관계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서 금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고 두고두고 기억되는 법입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17, 20일 길일. 15, 21일 주의</p>	<p><b>개띠   애정이 듬뿍 담긴 마음을</b></p> <p>● 운수: 주위를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서 반성과 자기를 한번 돌아다보는 것이 필요한 주입니다. ● 금전: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점점 떨어지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합니다. ● 애정: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따뜻하고 애정이 듬뿍 담긴 마음을 전해 보세요. 82, 70, 58, 46, 34, 22년생은 15,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돼지띠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b></p> <p>● 운수: 심신의 건강이 유지되고 의욕이 충만합니다.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자금 상태가 좋아서 자금 회전이 유리하게 잘 풀려 나아갑니다. 수지 밸런스도 양호한 편입니다. ● 애정: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로잡으려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15, 19일 길일. 16, 17일 주의</p>



# 동안 미인 비비안 수 해운 재벌과 내년 결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대만 출신의 배우 비비안 수(38)가 2세 연하의 해운 재벌과 내년 결혼한다.

대만 언론 핑귀르바오는 지난 2일 비비안 수와 그의 예비신랑 리원평(36)이 손을 잡고 웨딩드레스숍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1991년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 '소녀대'로 데뷔한 비비안 수는 그간 가수와 모델로 활동하며 빼어난 미모로 인기를 누려왔다. 비비안 수의 소속사는 "현재 결혼식을 준비 중이며 전통에 따라 약혼을 먼저 할 예정이다"라며 "남자 친구가 결혼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대만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비안 수와 리원평은 약 6개월간 교제했으며 리원평이 비비안 수의 영화 촬영 현장을 찾는 등 바쁜 스케줄 가운데 데이트를 즐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리원평은



106척의 화물선을 보유한 싱가포르 해운기업 마르코폴로마린의 경영자로 6년 전 이혼해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안 수의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한결같이 예쁘다. 저 미모가 38살이라니", "지금도 예쁘지만 예전에는 날아다녔다", "저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축하해요. 이제는 놓아줄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s.yang@bostonkorea.com



## 가수 김지훈 숨진 채 발견돼 충격

금일 오후 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가고 있다. 왜 호텔에 묵었는지,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는 병원에 도착해보야 알 것 같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그룹 투투로 데뷔한 김지훈은 '일과 이분의 일'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는 2000년 멤버 김석민과 함께 듀크를 결성해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 부인 이모 씨가 2010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으며 김지훈은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등 순탄치 못한 생활을 이어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인들의 말을 빌려 "가족들과 지인들은 고인의 비보를 접하고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살로 추정되지만, 경찰의 추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s.yang@bostonkorea.com

## 도희 타이틀 촬영 때아닌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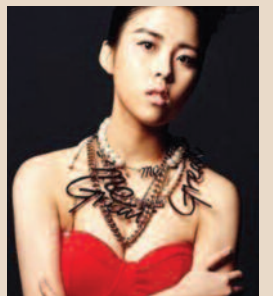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타이니지의 멤버 도희 타이틀 촬영 사진이 때아닌 화제다.

도희는 오는 21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온스타일 (패션킬라)에 출연해 8주간의 거친 경쟁에 도전장을 던진다.

그는 최근 타이틀 녹화 촬영에서 '섹시 카리스마' 포스를 뽐어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타이틀 촬영 컷에서 새빨간 튜브톱 의상을 입고 등장,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포스를 과시했다. 독특한 선글라스는 물론, 화려한 목걸이까지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차세대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드러냈다.

도희 촬영 타이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카리스마 쩐다", "카리스마 보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yang@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남성 듀오 듀크 출신 가수 김지훈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오후 한 매체는 김지훈 지인의 말을 인용해 "김지훈이

# 천지보살

운명사주합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웨딩 비디오 예약 접수중

## 영상앨범 제작 서비스

50% Sale

추억은 영화다

정지된 사진도 음악과 만나면 멋진 영상앨범이 됩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아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 오래된 사진도 복원에 드립니다

영상촬영 / 편집전문 원도우 동영상 / 유튜브 / 인터넷방송  
나비스 617.756.5744 ozio@hotmail.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학우스 티모빌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Qiang Ma**  
617-319-7367

**단독주택 Single Family**



**\$634,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90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집  
미주 살기 좋은 도시 1위  
이현주 401-935-3397



**\$529,900**  
**Easton, MA**  
4 Beds, 2.5 Baths  
조용하고 넓은 공간  
New Roofing  
Jason Jeon 617-642-5670



**\$649,500**  
**Burlington, MA**  
넓고 쾌적한 공간 3000 sf.  
Fully renovated kitchen  
H-Mart, Burlington Mall 근접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799,000**  
**Andover, MA**  
4 Beds, 2.5 Baths, 4001 sf.  
Gorgeous colonial home  
SJ Park 617-304-7001



**\$389,900**  
**Shrewsbury, MA**  
3 Beds, 2 Baths, 2076 sf.  
좋은 가격, 넓고 실용적인 구조  
Michael Yun 617-459-5985



**\$550,000**  
**Danvers, MA**  
4 Beds, 3 Baths, 2620 sf.  
Large lot  
Easy access to I-95  
Jason Jeon 617-642-5670



**\$8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210,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콘도 Condominium**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206-734-1407

**콘도 Condominium**



**\$149,900**  
**Westminster, MA**  
3 Beds, 2 Baths, 1200 sf.  
조용하고 아담한 타운 하우스  
Kwang O. Kim 617-792-8615

**타운 하우스**



**\$215,000**  
2 Beds, 1.5 Baths, 1152 sf.  
**Chelmsford, MA**  
업데이트된 roof, water tank  
나원태 617-642-3156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리커스토어**  
**Allston**  
\$1,000,000  
S.J Park 617-304-7001

**차이나타운 식당**  
건물까지 가능  
보스톤에 5개 뿐인  
24시간 영업 허가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Sharon, MA/ \$18,500  
급매, 좋은 위치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320,000  
엘머스트 downtown/ 일식당  
Beer Wine License  
Won T. Ra 617-642-3156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http://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http://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황수진  
617-538-697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afe	Restaurant	Business Consulting	Fish Market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245,000  
Brockton, MA  
Located in busy Mall  
Great business opportunity  
Won Ra 617-642-3156

Full Plant Cleaner	Full Plant 세탁소	Dry Cleaner	Clothing Store

\$120,000  
Norwood, MA  
슈퍼마켓 있는 상가내 위치  
넓은 주차 공간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Jin Choi 617-877-0387

\$200,000  
Middleton, MA  
안정된 Full Plant 세탁소  
Millde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Call for Price  
North Andover, MA  
년 매출 \$180,000  
Price reduced  
고정 손님 확보  
Jin Choi 617-877-0387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Restaurant	Grocery	Restaurant

\$70,000  
Concord, MA  
잘 운영되는 drop store  
Great business opportunity  
Anna Jung 617-780-1675

\$690,000  
Allston, MA  
맥주, 와인, 소주  
S.J Park 617-304-7001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195,000  
Allston, MA  
한국 식당 급매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Investment	Drop off Store	Convenience Store	울스톤 식당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25,000 Manchester, MA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건물까지 가능 플리커, 450 capacity 현 1.85M 매출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커머셜	울스톤 역 앞	APT Rental
\$179,000 Nashua, NH 잘 운영되는 Asian Restaurant Jason Jeon 617-642-5670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5,000 Sf. 빈자리 렌트 최고 한인 비즈니스 자리 S.J Park 617-304-7001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전(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Them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or come with Your kingly power.)" 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누가복음 23장 34절, 42절 43절.

새누리당은 10일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의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대리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제명대상이 된 민주당의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 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암살 당한 교훈이라는 뜻)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무기 삼아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를 할 경우 (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암살 되기를 바란다"는 독언(毒言)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지역구에서 3선을 했다는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썩었다.

하루 앞서 민주당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돌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로 당선 됐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 보궐 선거를 실시하라"고 했다.

올해 초선인 장의원은 민주당이 청년몹으로 정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뽑혀 의원직은 얻었다. 올해 36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첫째 "자기 진영을 단합시키는데 마음을 모으고" 다음은 "상대 진영을 흔들어 놓고" 중립지에

에 있는 "민심을 끌어와야" 제몹을 하는 셈인데.

딸이 이어받은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암살을 부추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자기당 입장을 고약하게, 반대당에 채찍을 쥐어주고 민심이 혀를 차게 만들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도 똑같다. 민주당 내에 이런 자해적(自害的) 발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민주당에 명목상 수뇌부가 있을 뿐 당이 무질서와 혼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민주당 사람들 발언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왜 1년 가까이 새누리당의 절반에 불과한 20%선에서 헤메는지 반증한다"고

두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징계안에서 "양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을", 장의원은 "박대통령이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망언을 했다"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새누리는 두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임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 이라면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으므로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이 징계안은 국회윤리특별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찬반 표결 절차를 거쳐야만 하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특위 상정부터 심한 진통을 겪을 듯.

言 : 善言선언: 좋은 말 전. 두 글자의 뜻 그대로 "선하고 착한 말" 전이다.

언(言)도 선(善)도 그리스도 예수(Christ Jesus)의 신봉증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요한복음 1장 1, 2절.

이 말씀을 중국 성경은 話(화)로 표현했다. (2013. 4. 22자 人칼럼 참조)

話는 言(언)과 舌(설)의 합자다. 言은 (1) 一: 義關(의결) 곧 하나님의 대결을 그리고 (2) 二(이)는 2번째(The second)는 인자(人子 = Jesus Christ) (3) 하나님(一), 예수님(二) 그리고 성령님(口)이 합쳐 言인데 이 말이 작동하기 위해서 (4)舌(설 = 혀)가 동참하는 것이 話. 그런데 이 혀를 그리는 舌자는 丿(左引之: 좌인지)는 그림 그대로 혀의 모형을 표시하지만 그의 에너지 즉 동력은 하나님의 숨결을 표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 창세기 2장 7절.

해서 話: 言 + 舌: 始也 '비롯할'고. 풀면 話는 흙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콧구멍으로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은 시점에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

"태초에 말씀(話)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결국 창조 삼위(言)가 작동하는 시점은 모든 인간이 이 당에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舌)이 작동한다.

혀설(舌)자를 다시 보면 하나님의 숨결(丿)이 십자가(十) 말씀(口) 위에 얹혀있다.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인 것은 "사람의 혀"들이 집합된 곳이어서다. 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예수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I(Jesus) tell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이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義)로운 자와 불의(不義)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in heaven. He causes His so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perfect." - 마태복음 5장 43, 44, 45, 48.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배우는 까닭 중 하나다.

현재 서울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 양승조, 장하나 의원들의 독기어린 설전(舌戰)을 잠재우고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충고이며 전이다.

자기 몸에 까닭도 모르고 쇠뿔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최후를 기다리는 강도에게 천상(天上) 낙원에 함께 가자하시는 예수님의 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을 터.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다 집어도.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을 통해 여행가는 마음으로 떠나세요!

HURAM 여행처럼 떠나는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내국인과 동등한 비용

수준 높은 서비스

최고의 시설/장비

검증된 의료서비스

## 고품격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휴람

### MEDICAL TOUR

'휴람'이란? 'HOSPITAL, HEALING+URAM(유람-돌아다니며 구경하다)'의 합성어로 한국의 의료와 관광을 연결해주는 의료관광 전문 회사입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 휴람**

해외동포들이 한국방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의료에 대해 믿을 수 있는 병원들을 선별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경제적인 가격, 질 높은 의료, 대우 받는 서비스 등 가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휴람이 제공하는 혜택

**휴람의 네트워크 병원을 이용한 후 영수증 제출시, 지불한 비용의 5%를 환불해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리한 서비스로 휴람이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상담/예약
병원선별
예약 & 수술
치료
종료

<b>임플란트/교정 보아지과</b>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b>피부관리 미엘르피부과</b>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b>피부관리/모발 장피부과</b>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b>피부관리/모발 미피부과</b>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b>발정/지질 기병병원</b>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b>모발이식/기타성형 IP성형외과</b>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b>임플란트/교정 세순치과</b> 서울시 중구 명동
<b>볼출입/기타성형 강남제일성형</b>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b>중합검진/진료/수술 중앙대학병원</b> 서울시 동대문구 흑석로 102	<b>이비인후과 소리귀클리닉</b> 서울시 광진구 능동	<b>여성성형/요실금수술 레이디유로</b>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b>피부과/모발이식 강남테아피부과</b>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b>임플란트/교정 불이오치과</b>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b>지주재생프로그램 옥스치과</b>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속(?)보다 아름답다”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팅/임플란트/명품 수술)  
3D리타이팅 수술 (시술시간 1시간/회복시간 1시간)  
레이디유로만의 3D리타이팅 비법으로 1시간 만에 처너져 질 상태로 복원  
**특별가 300만원 → 290만원 (3월~5월)**

250만원

임플란트 수술 (시술시간 1시간/회복시간 1시간)  
임플란트 보형물을 질 정맥 하부 근육층에 삽입/흡/조금 탄력있는 질 상태로 복원  
**특별가 300만원 → 290만원 (3월~5월)**

550만원

레이디 임플란트(명품) 수술 (시술시간 1시간/회복시간 1시간)  
각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효과 만점!!  
**특별가 300만원 → 290만원 (3월~5월)**

150만원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회복시간 1시간)  
지스밋에 보형물/특수 필러를 주입하여 본인&남성 모두의 만족도 증폭  
**특별가 300만원 → 290만원 (3월~5월)**

150만원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15분/회복시간 1시간)  
중년여성의 1/3이 알고 있는 요실금의 근본적인 해결  
**특별가 300만원 → 290만원 (3월~5월)**

100만원 / 200-400만원

\*병원 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람의 네트워크병원은 서울 강남과 압구정에 있습니다.

미국문의: 617.583.2339 | 한국문의: 82.70.4141.4040

이메일문의: [ha.park@bostonkorea.com](mailto:ha.park@bostonkorea.com)



한의원 선유당 원장 이선영  
617-327-1812  
1208B VFW parkway  
suite 201 Boston MA 02132  
www.sunudang.com, info@sunudang.com

## 집에서 따뜻한 한방차 만들기

우리 몸 속에는 소량의 독이 필요하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의 몸 속에는 청결하고 안정된 곳에서 살아 가는 것에 비해 몸 속에 과하게 독소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와 음식에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식당에서 사먹는 음식의 화학첨가물이 소화과정에서 충분히 소화 되지 못하고 대변이나 소변, 땀으로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축적되고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몸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살펴 독소의 성질을 분석하고 또한 병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 독소를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배출하거나 또는 체내에서 분해하는 방법으로 신체 회복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는 한방 약재를 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하여 약을 복용했고, 증상이 미약하거나 예방 차원의 경우는 지금의 건강 기능 식품이나 건강 보조 식품의 개념으로 한방 차를 마셨습니다.

옛 선조들은 차 한잔에도 건강을 생각하며 자연과 더불어 차를 마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커피를 맛과 향으로 마시지만 예전의 우리 선조들은 차를 맛과 향으로만 즐긴 것이 아니라 체질에 맞게 건강에 이롭게 운치있게 마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도 우리 몸에 맞는 차를 운치있게 마셔 보자는 취지에서 집에서 한방 차를 만들 수 있게 차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한방 차를 만들 때 주의 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만들게 되는 것은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 기능식품 같이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만

드는 것입니다.

약재 함량이 많아지고 농도가 짙어지면 한약이 됩니다. 한약이 되면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은 몸을 치유할 만큼 강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 강한 약재를 장기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을 경우 심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차로 마실 때와 약으로 사용할 때는 약재를 사용하는 양도 다름뿐더러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할 때에는 인체 내 항상성을 유지시키고자 종합적인 진단에 따라 처방이 쓰여집니다.

환자의 증상에 맞게 약재를 가감하고 약재에 있는 독성을 줄이기 위해 법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의 호전 여하에 따라 먹을 양과 시기 또한 달라지며 처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처방되는 양만큼의 한약재를 개인이 외부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한의원에서 직접 처방해서 먹기 편리하도록 다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저렴하게 한약을 드

시려고 한약 도매시장에서 법제가 되지 않은 약재들을 한의사 처방 없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다려서 드시다가 부작용이 심하다거나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들을 각종 매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비용을 아낀다고 직접 약을 다려 드시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우선 한방차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물 1L정도의 분량에 한 스푼 정도의 한약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오자차 한 스푼을 1-1.5L의 물에 끓여 놓고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드시도록 하는데 편안하고 맛있게 드시면서 무슨 차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약재를 잘 씻어야 합니다. 한약재도 기타 농산물처럼 대단위로 생산하기 때문에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건조 과정에서 이물질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로 약재를 잘 씻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에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1시간 가량 약재를 담가 두었다가 마지막으로 행군 후 사용해야 농약이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셋째는 너무 오래 끓이면 한약재에 있는 질긴 섬유질을 함께 먹게 되므로 소화 흡수가 어렵고 약성이 떨어지므로 살짝 차처럼 끓여 마십니다. 한방차를 끓일 때는 살짝 끓인 후에 불을 줄이고 20-30분 정도 끓여 우려내면 약을 건져내고 하루 두세 차례 따끈한 차로 음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방차 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주부터는 한방차의 종류와 약재별 효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향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 품격을 더하는 화전도 현수막
-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 국나산 웅기접시와 찬기, 공기

-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29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l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 낮게 깔리는 공 (Low Shots)을 어떻게 칠 것인가?

낮은 타구의 공이 언제 필요한가? 공이 높이 뜨면 뭘가의 장애물이 있을 때이다. 위쪽에 나뭇가지가 있다든지 혹은 바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땅에 일부러 맞히기 위해서 낮은 타구의 공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1. 나무가지를 피하는 경우:** 숲속이나 나무 가까이에서 공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샷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나뭇가지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멋진 임팩트의 샷을 만들어 냈는데 그 공이 잘 나가는 듯하다가 위에 있는 나무가지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나뭇가지에 살짝 맞아서 방향이 빗나가게 되는 경우를 골퍼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나무기둥은 두꺼우니까 오히려 피하기 쉽다.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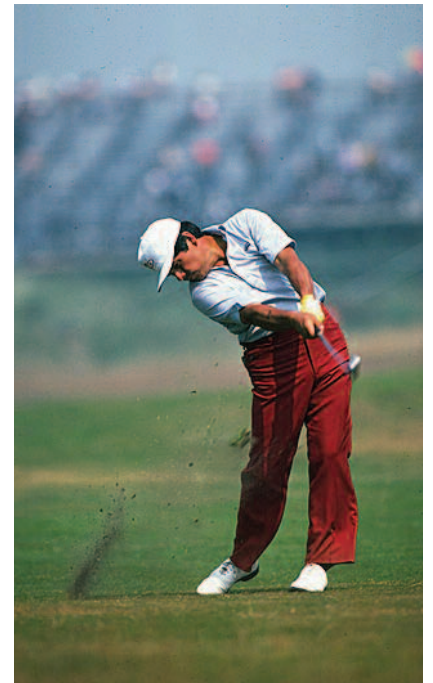
꺼우니까 당연히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미리 예방하면서 샷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나뭇가지는 얇기 때문에 얽잡아보기 일수다. 나무가 곁에 있는 경우 가능하면 낮게 공을 치는 것이 의외의 복병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2. 맞바람에 부딪칠 때:** 인생의 역풍이 불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듯이 골프에 있어서도 역풍이 불면 공을 날려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거리가 짧게 나가는 골퍼라면 그 고충이 더욱 심하다. 일단 역풍이 불면 거리가 확 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클럽으로 같은 거리를 내겠다고 용을 쓰게 되면 거기서부터 골프는 꼬이게 된다. 일단 긴 클럽을 선택하는 것을 첫번째로 생각하고 그 다음 낮게 샷을 구사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된다.

**3. 그린주위의 언덕에 공을 맞힌 다음 공이 그린 위에 올라가게 할 때:** 흔히들 '범프앤런(Bump and run)' 이라고 불리는 샷이다.

공을 높이 띄워서 그린에 소프트하게 떨어뜨리면 좋을텐데 그렇게 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나 아직 그런 로빙샷을 구사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범프앤런 만큼 적절한 샷이 없다. 백스핀으로 공이 굴러가는 것을 언덕에 맞히므로써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때 낮은 탄도의 샷이 필요한 이유는 높은 탄도의 공들은 언덕에 맞고 속도가 너무 줄어서 아예 그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린 에지에 머물러 있기 쉽기 때문이다.

낮은 탄도의 샷을 구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클럽페이스의 각도를 낮추는 것이다.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로프트가 낮은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9번 아이언 대신 7번이나 6번 아이언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도가 낮아진다. 둘째로는 공의 위치를 평소보다도 오른쪽으로 놓는 것이다. 이 역시 자연스럽게 클럽의 각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낮은 타구를 만들어 낸다. 셋째로는 임팩트 이후에 맞는 각도 그대로 공을 더욱 밀어준다.



마치 치핑을 크게 한다는 느낌으로 밀어주게 되면 확실한 낮은 타구의 구질을 구사할 수 있다.

### SAT/SSAT 방학 특강

- ✓ 12월 23일 (월) ~ 12월 29일 (일)
- ✓ SD가 보장하는 점수 UP Guarantee!
- ✓ 이론부터 실전까지~ 공인 기출 문제 제공!

### AP/SAT Subject Review

- ✓ 과목별 필수 이론 정리 + 시험 대비 연습
- ✓ 실전 문제 위주의 학원 자체 교재 (Math/Chem)
- ✓ 학교 내신과 시험 점수를 한번에 잡자!

### 사립고/대학 진학 컨설팅

- ✓ 세련되고 먹히는 에세이의 정석
- ✓ 깔끔한 이력 정리 및 최종 원서 리뷰
- ✓ 학교별, 개인별 최적의 전략 제시

**SD ACADEMY**  
**CHRISTMAS**  
**마무리 특강**



614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SDAcademyonline.com | (617) 505-1852

문화와 예술 섹션에서는 무료, 유료 예술작품 전시, 연극, 강연, 예술가 소식, 예술 작품관람 팁, 뮤지엄의 가족 프로그램 등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왓슨과 상어, 1778, 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 (Gallery 128)

# 51

## 문화/예술 컬럼니스트 장동희

Museum of Fine Arts, Boston 강사 / 보스턴 아트 스튜디오 원장  
167 Corey road, suite 205, Boston MA 02135 ph) 857 756 2557  
jandonghee@bostonartstudio.com / www.bostonartstudio.com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by Jan Donghee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필자의 소유물로써, 본인의 허가 없이 무단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전시,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슨이 허우적거리며 항해사들을 향해 도  
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배 위에는 소  
년을 구조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항해  
사들의 안타깝고 절박한 표정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있다. 소년은 결국 극적으  
로 구출이 되지만 이 사고로 오른쪽 다  
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왓슨은 훗날 삶  
을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 영국에  
서 부유한 상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중요  
한 직책들을 맡게 된다.

전통적으로 성경 이야기나 신화, 전  
쟁 혹은 국가의 영웅 등을 주제로 제작  
되었던 역사화와는 달리 코플리가 선택  
한 주제는 개인의 일화를 담은 것이었다  
. 그러나 그의 새로운 시도는 많은 비평  
가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고, 영국  
의 관객들에게도 많은 찬사를 받게 된다  
 . ‘왓슨과 상어’ 는 점차 유명세를 타  
며 포스터로 제작되어 사람들에게 판매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뻐던  
코플리는 개인 소장용으로 ‘왓슨과 상  
어’ 를 똑같은 크기로 한 점 더 제작하  
였는데, 첫 번째 그림은 워싱턴 국립미  
술관에 소장되어있고 두 번째 작품이 보  
스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www.mfa.org



다람쥐와 소년, 1765, 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 (Gallery 132)

## 커피 한 잔, 예술작품 한 점

보스턴이 사랑한 예술가: 존 싱글턴 카플리(2) John Singleton Copley

미술 환경이 척박한 식민지 시대 미  
국에서 대부분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한  
코플리는 폴 리비어, 사무엘 애담스, 존  
행콕과 같은 보스턴 출신 독립운동가와  
애국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초상화 작  
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럽  
에 비해서 박물관이나 예술관련 자료들  
이 턱없이 부족했던 신생국가에서 작품  
활동에 한계를 느꼈던 코플리는 예술적  
역사가 깊은 유럽을 여행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그 곳에서 유럽의 유명 화  
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열망  
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영국 미술계에서  
냉정히 평가 받고자 런던에서 잘 알려진  
왕립 미술가 협회전에 작품을 출품하  
기로 결심한다. 출품을 위해 그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이 바로 ‘다람쥐와  
소년’ 이다. 코플리의 이부형제인 헨리  
를 그린 이 작품은 동생에게 커미션을  
받아 그린 작품이 아니라 코플리가 협회

전에 출품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착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관들에게 한눈에 좋은 인상을 받  
을 수 있을만한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코플리는 치밀하게 작품의 구도  
를 설정한다. 인물의 구도는 평범한 정  
면이 아닌 측면으로 하여 마치 의도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였  
고 동생에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그  
이 바라보도록 주문하여 밝게 빛나는 부  
드러운 피부와 머리 결의 효과를 냈다.  
코플리는 초상화를 주제로 선택하였지  
만 정물을 그리는데 실력도 함께 보여주  
고 싶었다. 그는 테크닉과 묘사력을 과시  
할 수 있는 정물들을 골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부드러운 털을 가진 작은  
날다람쥐와,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물을  
사물이 반사될 만큼 반짝이는 재질의 책  
상 위에 놓았다.

코플리는 완성된 그림을 1766년 런던  
미술가 협회전에 출품한다. ‘다람쥐와

소년’ 은 영국에서 화가로서 명성이 높  
았던 웨스트와 레이놀즈의 격찬을 받으  
며 영국 미술계의 관심을 받는다. 특히  
레이놀즈는 코플리의 작품을 칭찬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후 작가 활동을 이어갈 것을 적극 추천  
하는데 고민을 거듭하던 코플리는 1774  
년 마침내 영국으로 건너가 남은 생은  
그곳에서 작품활동을 하며 보낸다.

유럽에 도착한 코플리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수 천 년간 변치 않는 아름다  
움을 뽐내는 고대 건축물과 대가들의 작  
품들로 가득 찬 ‘예술의 보물창고’ 박  
물관을 감상하고 커다란 감명을 받는다  
 . 독학으로 공부하여 늘 목말라 있었던  
정식 미술교육도 1년간 받는다. 여행과  
미술교육을 마친 후 런던에 정착한 코플  
리는 예술적 영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  
는 걸작을 만들고 싶었다. 1778년 발표  
한 ‘왓슨과 상어’ 는 초상화를 주로 그

리던 그가 최초로 착수한 역사화이자 그  
의 바람대로 코플리의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있었던 일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14살 소  
년 왓슨이 하바나  
항구 근처에서 항  
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상어의 공격  
을 받았던 일화를  
그린다. 먹구름이  
가득 낀 회색 빛 하  
늘과 출렁이는 바  
다는 당시의 극적  
인 상황을 암시한  
다. 무시무시한 입  
을 썩 벌리고 있는  
상어의 커다란 주  
둥이와 아슬아슬하  
게 맞닿은 곳에는  
흔미한 표정의 왓

###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 내 초이스가 고객님들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한국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시립치과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외과적(TMJ)
- 보철기비치아
- 수인진정마취
- 신검체트
- 3D 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료상담

Dr. Young Suk Lee (이영석) D.D.S., M.S.D., F.I.C.D., F.I.A.C.R.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2002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Dr. Michael Hong (홍미철) D.D.S., M.S.D., F.I.C.D., F.I.A.C.R.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2002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Dr. Samuel Lee (이삼열) D.D.S., M.S.D., F.I.C.D., F.I.A.C.R.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2002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DENTAL

1st CHOICE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LIVE TOUR IN USA

희망을 노래하는

# 명품 보이즈

## 왁스 · 정동하 · 박완규

Production by Studio PAV M & C 

Music by Ha Yeongsuk Band (하영석 밴드)

## 2014 불후의 명곡 콘서트

“불후의 명곡” 과 “나는 가수다” 의 만남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 예매 및 판매처

Bergen Performing Arts Center(뉴저지 버겐팩)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가격: \$50, \$80, \$100, \$150,  
VIP \$200

티켓 예매 및 판매처:

교차로 신문사 718-460-0114

뚜레주르 뉴욕 맨하탄점, 뉴저지 팰팍점, 플러싱 메인점

뉴욕 플러싱 셔틀버스 운행

티켓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22일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 오후 6시 20분 공영주차장 앞  
선착순 100분, 왕복요금 \$20

주최: 1등 생활정보신문



레이디경향

주관:



언론후원: 교차로 협의회



코리안 버겐뉴스

벼룩시장



주간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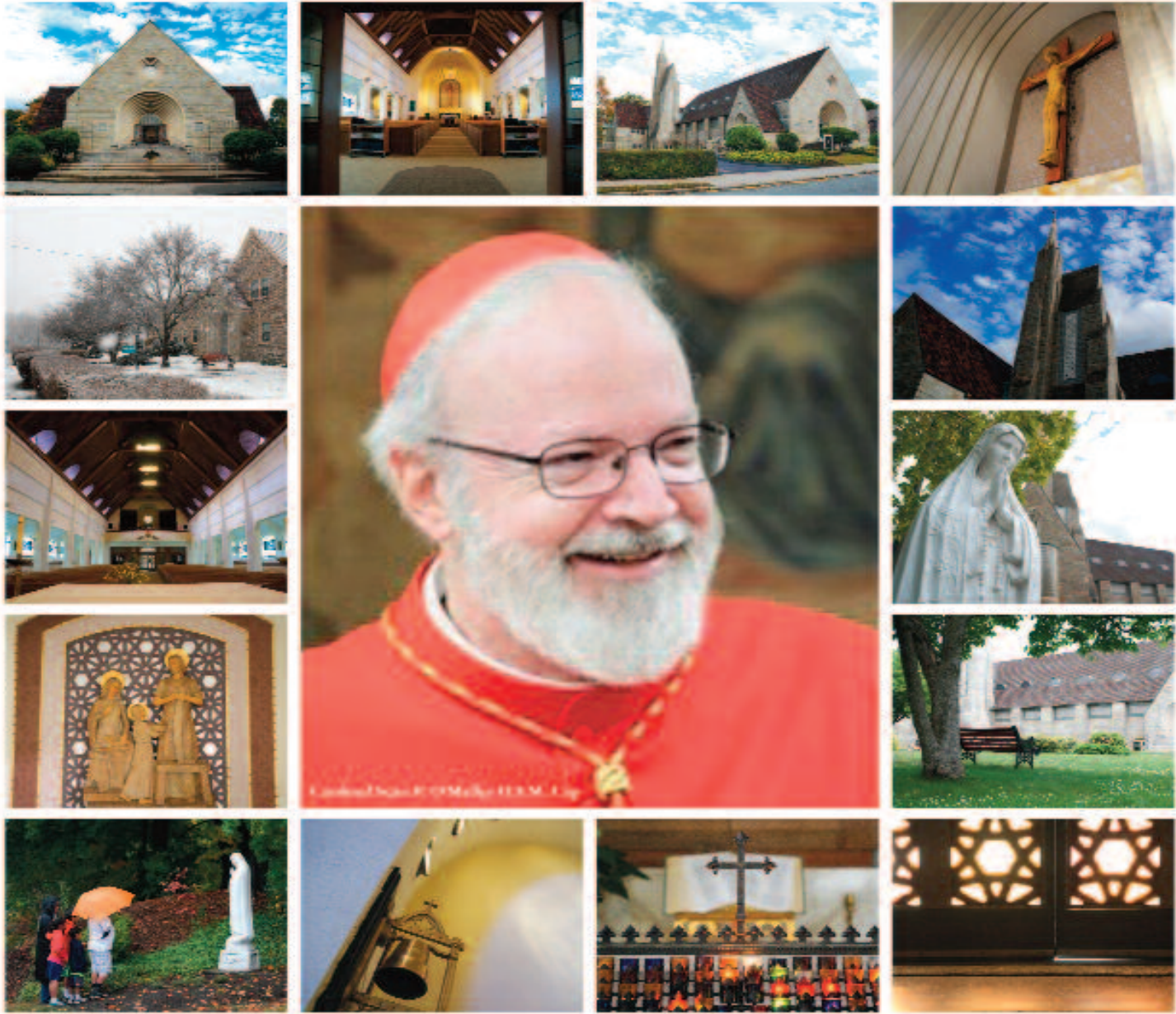
특별후원: ASIANA AIRLINES

후원: KTA TOUR KOREANATOUR.COM

TOUS les JOURS AUTHENTIC BAKERY



# 추기경님과 함께하세요!



## 미사: 2013년 12월 22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at Corpus Christi

45 Ash Street, Auburndale, MA 02466

Office (617) 558-2711 / Fax (617) 244-0188 / stdaveluychurch.org

Mass: Sunday 10:00am (Eng), 11:30am / 4:30pm (Kor)

Tuesday 10:30pm, Thursday 7:30pm, 1st Saturday of the Month 10:30am



# 코레일 파업 장기화 국면

## 파업참가자 전원 직위해제에 전국적 총력투쟁으로 맞서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둘러싸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한치 양보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철도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라는 코레일의 강공에 철도노조도 ‘대정부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장 다음주부터 화물수송뿐 아니라 KTX 및 광역전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전망이다.

### 수서발 KTX법인설립, 민영화 논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법인설립 계획은 민영화 꾀수"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겉으로 드러난 파업 이유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수순 밟기라며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코레일 소속 노동조합원이 최소 1,500명 정도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노조원 2만300명의 7%에 달하는 규모이다.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원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남아 있는 노조원들의 근무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연 누가 자회사로 옮겨 갈 지도 골치아픈 숙제가 됐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극구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철도 운영과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해 온 코레일은 현재 부채 17조원에 부채비율 440%의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철도노조는 해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000년 이후 이번까지 5차례나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경영 흑자를 내고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쟁 상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인력충원과 임금인상, 재정지출 등도 맘대로 할 수 없게 된다.

### 독점 막기 위해 철도경쟁체제 도입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파업 대응 방침을 말

하기에 앞서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 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정부, 불법파업 엄정대처

정부의 ‘엄정대처’ 원칙에 따라 코레일 측도 연일 파업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 이사회결결 강행 등 잇달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행보에 현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노조 총파업은 현 정부 임기 후 첫번째 공공노조 파업이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9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

여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또 이날 오후 파업참가자 4천213명 전원을 직위해제, 첫날부터 초강수로 대응했다.

파업 3일째인 11일 현재 파업사태와 관련해 직위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간부 144명을 포함, 6천748명으로 늘어났다.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10일 예정대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의결했다. 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전원이 법인 설립에 찬성 의견을 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 KTX 법인은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파업철회를 재촉했다.



지난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고 연대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조 반발, 총력투쟁 경고

정부의 이런 대응에 철도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오는 14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수서발 KTX 별도 법인설립 철회 및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지하철노조와 인천공항 지역지부 등 파업 중인 타노조와도 연대 투쟁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일엔 종교계와 함께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는 한편, 13일에는 전국 촛불집회, 14일에는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십수년을 함께 일해온 한가족도 설득하지 못하고 직위해제를 감행하면서, 국민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으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설립으로 매년 1100억원 넘는 매출 손실이 날 것”이라며 “이를 보전할 국가보조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 철도 파행운행으로 피해 우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철도의 파행 운행과 이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까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운행 중지 열차는 더욱 늘어 파업 첫날 101회에서 136회로, 주말인 14~15일까지 이어지면 140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화물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파업에 대비해 물류기지에 확보한 재고가 아직 남아 있어 당장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이 계속될 경우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면서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시멘트를 시작으로 레미콘 업체와 건설현장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국토부에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hs0h@bostonkorea.com

# 이어도 포함한 KADIZ 확대안 발표

## 한·중·일 관할권 주장하는 이어도 ‘갈등의 불씨’로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방부는 지난 8일 기존 방공식별구역(KADIZ) 남쪽을 확장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안을 최종확정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전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흥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어도다. 이어도 인근 해역은 한국 해군이 관할하고 있지만 그 상공은 일본이 1969년 선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 지난 달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미 들어가 있다. 여기에 한국도 새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동북아 3개국이 모두 관할권을 주장하는 ‘갈등의 불씨’가 탄생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3국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자국의 전투기를 동시에 출격시킬 수도 있다.

이어도 상공의 ‘관할 여부’는 정부가 발표한 이날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15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 아래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hs0h@bostonkorea.com



#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엔티비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엔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TV를 구입하시면 스마트폰 및 컴퓨터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는 **TVbogo.com** 이용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엔티비 하나만 충전된 다른 한국어 케이블은 필요 없습니다

**\$24.99**

최대 2대까지 추가 TV당 \$9.99 2년 약정시 Tax 포함 1년 약정시 \$29.99

enjoy & TV

[www.enjoyandtv.com](http://www.enjoyandtv.com)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617.650.6656

MBC, SBS는 예능 2-4주, 드라마 5-8주 홀드백(일정기간 상영불가)기간이 있습니다. KBS와 CJ&S는 홀드백이 없지만 빠른 시청을 원하시면 관당 49-60센트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고객의 경우 관당 상영률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홀드백 폐지 기념 특별 할인**

기간 | 10/21(월)~12/31/2013 대상 | 신규 고객

3개월간 **\$9.99**

엔티비가 한국 방송국과 홀드백 없는 상환 옵션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따라 신규 고객들은 3개월간 \$9.99에 홀드백 없이 TV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선택하신 옵션 \$24.99나 \$34.99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24.99: 기본과 같은 홀드백 2-4주 / 원\$34.99: 홀드백 없음

신청을 서둘러 주십시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sup>TM</sup>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Citizen Bank, Providence, RI

# PROSPay



NO ANNUAL FEE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FREE SUPPLY(종이, 잉크)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iPhone, Android)

사업 무담보 용자 대출

저희 **PROSPay**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ALDELO**  
for Restaurants



ATM



**Opening Hours**

Monday~Friday  
9:30am~9:00pm  
Saturday  
9:00am~9:00pm  
Sunday  
10:00am~8:00pm  
Christmas, NewYears day  
9:30am~5:00pm

# 릴라이어블 Market



**Sale Week 12월 13일(Fri)~12월 19일(Thu)**

이천쌀 햅쌀 Rhee Chun Rice (New Crop) \$10.99/15Lbs	돼지 목살 Pork Moksals \$5.99/Lb	뉴욕불고기 NY Bulgogi \$6.99/Lb	수라상 부추만두 Sura Leek Dumpling \$4.99/2,2Lbs	수라상 김치만두 Sura Kimchi Dumpling \$4.99/2,2Lbs
이씨네 만두피 Yessine Dumpling Wraps \$1.49/14oz	이씨네 떡볶이떡 Yessine Rice Cake for Tokkboggi \$2.49/1,32Lbs	아씨 맛 굴비 Assi Frozen Croaker \$11.99/2,75Lbs	수키나 단무지 Sukina Pickled Radish \$2.99/35,2oz	왕 콩치캔 Wang Canned Mackerel Pike \$1.99/400g 624g
오투기 3분 짜장 Ottoji 3Min, JAJANG \$3.99/3pk	해찬들 구수한 집된장 + 재래식 된장 Heachandle Soy Bean Paste \$4.99/1kg+500g(set)	해찬들 골드 고추장 Haechandle Hot Pepper Paste \$15.99/6,6Lbs	CJ 다시다 CJ Beef Soup Stock \$10.99/1kg	광천농협 녹차김 Seasoned Green Tea Laver \$10.99/Box
너구리 멀티 Neoguri (Family Pack) \$3.49/Family Pack	CJ 핫반 CJ Cooked Rice \$14.99/Box	삼립 단팥빵 Samlip Red Bean Bun \$2.99/7,93oz	아씨 알로에 드링크 Assi Aloe Drink \$1.99/1,5L	왕 먹기 좋은 꿀밤 Wang Roasted Peeled Chestnut \$1.39/2,82oz
오투기 컵 누들 Ottugi Cup Noodle \$1.49/each	아씨 대추 꿀 차 Assi Honey Date Tea \$1.99/12T-bags	농심 양파링 Nongshim Onion Ring \$0.99/3,17oz		

**3 Day Special**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타마키 골드(햅쌀)  
Tamaki Gold (New Crop)  
\$26.99/15Lbs

미린  
Sweet Cooking  
Rice Seasoning  
\$6.99/1L

요리주  
Sweet Cooking Wine  
\$6.99/1L

S&B 골든카레  
S&B Golden Curry  
\$2.79/8,4oz

## 릴라이어블 마켓

전화 | 617-623-9620  
주소 |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EBT카드 결제 받습니다  
김밥, 잡채, 부침개 등 주문도 받습니다  
릴라이어블 비디오, 한국 드라마, TV쇼 DVD 대여 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압션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60-70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론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아파트(34개 유닛), 상가(14개 유닛) 건물,  
모든 유닛 리스, 주차장 있음, 매매가격 \$5M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픽아님)

론드로맷 고급동네, 연매상 \$62,000, 소유자 부재, Open/Close 자동시스템

뉴햄프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전국체인,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60,000

보스톤 남쪽: 데어리퀸/오린지줄리어스, turnkey 경영, 연매상: \$300,000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아침+점심(5일) 보스톤 점심만, 연매상 \$250,000 아침 첨가할 수 있음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동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70,000 매매가 285K 소유자 은퇴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좋은 렌트

상가건물 4, 5 유닛 고급동네, 100% 수리 완료 매매가격 \$789,900

섬머빌 론드로맷 연매상 \$180,000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론드로맷: 연매상 \$60,000 캠프리지, 부수입! 무인 자동시스템 완비, 소유자 부재

드롭오프: 보스톤 서쪽 연매상 \$14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뉴튼지역 세탁소+셔츠 유닛, 내부수리 완료, 연매상 \$170,000+

동양식당: 연매상 \$250,000 새 시설, 학교 급매매 Any Offer 받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드롭오프+론드로맷: 연매상 \$455,000-100% 소유자부재 Working owner 매상증가 가능성



# 보스톤 교육원

<p><b>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li> <li>• 최고 에세이 편집자</li> <li>•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li> </ul>	<p><b>섬머/윈터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li> <li>•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li> <li>•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li> </ul>	<p><b>가다언 업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li> <li>•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li> <li>•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li> </ul>
<p><b>아카데믹 프로그램</b></p> <p>SAT 1, 2 / AP 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li> <li>• 단기 고득점 완성</li> <li>• 실전 문제 중심 수업</li> <li>• 상시 참여 및 주말 수업 가능</li> <li>•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li> </ul> <p>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li> <li>•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li> <li>•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li> </ul>	<p><b>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12월 21일 ~ 31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li> <li>• SAT1 / SSAT / TOEFL class</li> <li>• SAT2 Subject test prep</li> <li>• 전과목 개인 수업 가능</li> </ul>	<p><b>2015 College Proc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11 학년</li> <li>• 모집기간: 2014년 2월 말까지</li> </ul> <p style="color: red;"><b>최근 3년 교육현생 대학입학현황</b></p> <p>Harvard(2), MIT(4), Stanford(1), Oxford(1), Princeton(3), Dartmouth(4), Columbia(8), Cornell(4), Johns Hopkins(7), Uperni(2), NYU(10), Emory(9), Brown(3), Michigan(1), Georgetown(3), UC 계열(3) 등</p>
<p><b>경시대회 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경시 준비(AMC/AIME)</li> <li>•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li> <li>•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생물, 물리, 화학)</li> <li>• Writing/Fine Art 경시</li> </ul>		<p><b>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b>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6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p>